

Style 1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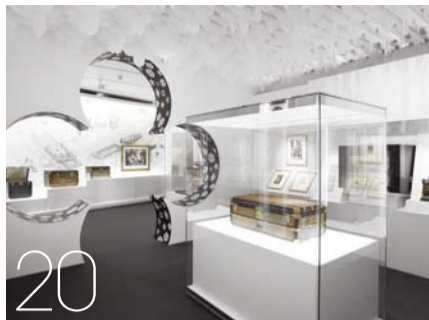
SEPTEMBER 2012 vol.80

front STORY

삶을 혁신하는 몰입,
그 경이로운
메커니즘



Sulwhasoo



68

20

조선일보
Style
September 2012

Sulwhasoo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설화수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에센스, 여민에센스다. 초기 노화에 효과적 인 에센스로 피부 밀도를 개선해 흐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을 살려준다. 설화수의 영실단 성분이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에 탄력을 더해 노화의 징후와 흔적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텍스처가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피부가 금세 촉촉해진다. 문의 080-023-5454



12

44

- 18 **삶을 혁신하는 몰입, 그 경이로운 메케니즘** 허무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몰입의 미학'에 빠져보기를 권한다.
- 20 **JEAN-MARC GADY** 다양한 디자인 장르를 섭렵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 디자이너 장마크 가디와 함께한 파리 현지 인터뷰.
- 22 **2012 F/W BEST LOOK** 2012 F/W 빅 브랜드들의 기록.
- 26 **TRULY SPLENDID**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의 세계.
- 28 **JEWEL ATTRACTION** 패션 하우스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득 담아 선보이는 주얼리 컬렉션.
- 30 **LORD OF THE BAGS** 럭셔리한 악어 가방 컬렉션.
- 32 **ENRICHMENT SERUM** 고농축 제형의 기능성 세럼이 필요할 때.
- 34 **THE HIGHEST INGREDIENTS**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탄생한 하이엔드 성분은 브랜드의 진보된 기술력을 경탄케 한다.
- 36 **THE TOWN BAG** 2012 F/W 남녀 가방 신제품.
- 42 **ULTIMATE PRESTIGE** 새로운 BMW 7 시리즈의 위용.
- 44 **HEY, MR. RIGHT** 청량한 중년의 아이콘, 배우 이상재가 꾸미지 않은 듯 멋스러운 2012 F/W 룩을 선보인다.
- 52 **ITALIAN PERFECTION** 이탈리아의 클래식한 우아함을 담은 핸드백 브랜드 '코치넬리(COCCINELLE)'의 2012 F/W 컬렉션.
- 53 **ROCOCO GLAM** 파치오티의 다양한 2012 F/W 슈즈 컬렉션.
- 54 **NOVELTY OXFORD** 품격에 위트를 더한 투톤 옥스퍼드 슈즈.
- 55 **PASSION & FASHION** 닉스 레드 캠페인의 첫 번째 아이콘 김윤아의 스토리에 귀 기울여볼 것.
- 56 **ROCK CHIC** 스와로브스키의 룩 시크 브레이슬릿 스타일링.
- 57 **HIGH MODERN CLASSIC** 갤러리에서 클래식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새로운 컬렉션 'GX1983'을 선보인다.
- 58 **WONDER TREATMENT** 라프레리의 새로운 얼굴, 스킨 케어 리퀴드 리프트 세럼을 소개한다.
- 59 **UPGRADE YOUR SKIN**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면 '아모레퍼시픽 ABC 세럼'이 정답이다.
- 60 **FABULOUS FACE** 꿈꾸듯 가벼운 텍스처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파운데이션 '미에스트로'를 소개한다.
- 61 **ETERNAL FEMININE** 가브리엘 사벨의 삶을 담은 향수 '코코 누와르'가 58년 만에 탄생했다.
- 62 **AUTUMN COLORS** 올가을엔 더욱 풍부하고 깊어진 컬러가 당신의 얼굴을 따스하게 물들인다.
- 63 **PRECIOUS MOMENT** 하이엔드 향수 브랜드, 디퍽의 제품들.
- 64 **THE BEAUTIFUL DAYS** 세프와 스타일리스트가 말하는 르크루제 이야기.
- 66 **WRINKLE FREE** 시세이도의 리바이탈 바이탈-퍼펙션 사이언스 크림 AAA. **서적 업계의 명품 브랜드, 한국 상륙** 서적계의 명품 브랜드 애슬린(ASSOULINE)이 한국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ART OF MAISON IN SHANGHAI** 중국 최초의 루이비통 플래그십 매장이 상하이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 68 **GROTTA PALAZZESE**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플라노 아 마레와 레스토랑 그로타 팔라체세를 만나보자.

Style 조선일보

Issue.80 september 201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예진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ING PROCESS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첫째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2·3·4·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르베이지 한남동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

Focus

A NEW AND FINE SPACE

지금 서울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지역을 꼽는다면 바로 한남동이 아닐까?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과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고 합한 레스토랑들과 작지만 트렌디한 숍... 문화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트렌드가 공존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지역의 변신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다. 9월 5일은 여기에 또 하나의 스타일리시한 명소가 오픈하는 날이기도 하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제일모직의 패션 브랜드 '르베이지'에서 한남동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것. 패션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세대를 위한 '메종 르베이지'까지 오픈해 토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럭셔리하고 편안한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르베이지의 패션은 물론, 그 DNA가 베딩, 가구, 그리고 다양한 소품 등에까지 녹아 있는 메종 르베이지를 만날 수 있는 르베이지 플래그십 스토어는 매일 진행되는 다양한 전시 공간까지 구비해 문화와 감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새로운 쇼핑 공간의 등장이자 국내 패션 브랜드의 과감하고 진취적인 도전. 한남동을 방문할 또 다른 이유가 생긴 듯하다.



Beauty SWEET CHEEK

들뜨고 번들거리기 쉬운 여름철 메이크업에서 텃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블러셔가 활약할 계절이 돌아왔다. 블러셔의 매력은 양 볼에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수줍은 소녀에서 관능적인 여인으로 변화무쌍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 올가을에는 다양한 컬러를 믹스한 셰이드로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거나 극도로 미세한 시머 입자의 슬리드 컬러로 맑고 깨끗하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독특한 물결무늬 셰이드가 특징인 **에스티 로더 시그니처 5-톤 쉬머 파우더**는 5가지 컬러 중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아이섀도, 블러셔, 하이라이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10g 6만원). 투명하고 섬세한 5가지 순수 피그먼트를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만든 **비비 브라운 쉬머 브릭 컴팩트**는 광대 라인을 따라 쓸어내리면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살려준다. 메이크업 초보자라면 슬리드 컬러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다양한 컬러와 가벼운 마무리감이 특징인 **백 파우더 블러셔**는 자연스러운 핑크를 선사하며(6g 3만원), **슈에무라 크림 온**은 크리미한 질감이라 사용감이 간편하고, 매끈한 윤기를 돌게 한다(2.8g 3만3천원). 핑크 파우더 블러셔 **디올 로즈 글로우**는 모든 피부 톤에 자연스럽게 발색되어 장미빛 뺨으로 물들어준다(7.5g 6만2천원).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메테오리트 펄이 빛을 머금은 듯 화사한 안색을 만드는 **헬랑 메테오리트 펄 일루미네이팅 파우더-퓨어 래디언스**(30g 7만4천원). 37가지 다른 컬러와 텍스처가 특징인 **루나슬 컬러링 치크**는 기루 날림 없이 완벽히 밀착되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6.5g 4만원). 랑콤의 시그니처인 장미 패턴에 담긴 **랑콤 블러쉬 스텝 로즈**는 빛을 머금은 듯 촉촉하게 빛나면서도 자연스러운 생기를 선사한다. 리본더 핑크빛 홍조를 완성하고 싶다면 **베네텡트 허바나**를 선택할 것. 47지 색상을 등극리드 섞어 헤어 라인부터 볼의 가장 높이 솟은 부분까지 터치하면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이 완성된다(8g 4만2천원). 에디터 **이예진**

Jewel PINK CRUSH

여성스러움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증표, 핑크 주얼리 컬렉션.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손가락을 교차한 듯한 디자인의 럭키 앙트레세 링 4백10만원대 **까르띠에**.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교차해 세팅한 식스틴 스톤 링 1천1만원대 **타파니**. 뱀의 머리 부분에 핑크 루벨라이트를 세팅한 세르펜티 링 2천8백만원대 **불가리**. 핑크 골드에 핑크 루벨라이트를 세팅한 화려한 이어링 1천7백만원대 **불가리**. 아르데코 스타일의 핑크 루벨라이트 세팅 레거시 링. 1캐럿 기준 1천만원대 **타파니**. 핑크 골드에 불드한 핑크 쿼츠를 사용해 거북이의 등을 표현했다. 2천만원대 **부세론**. 연꽃에서 모티브를 얻은 사랑스러운 핑크 쿼츠 세팅 앤드 미스터리어스 컬렉션 링 9백40만원대 **까르띠에**. 옐로 골드에 핑크 투르말린으로 하트 모양을 표현한 하츠어파이어 네크리스와 링 5백80만원대 **타사키**. 에디터 **배미진**

홍영민 피터드-토포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Place 풍요로움을 즐기다, 복합 체험 공간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연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자리 잡은 장흥아트파크도 그중 하나. 시민들에게 능동적인 문화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는 창작과 전시의 장을, 기업에는 문화 사업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지닌 다목적 공간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듯 미술관, 조각 공원, 어린이 체험관, 야외 공연장, 1·2아틀리에, 그리고 휴식 공간까지 두루 갖춰져 있다. 특히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미술관에서는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 백남준 등 국내외 거장의 작품들을 언제라도 감상할 수 있는 상설 전시가 개최되고, 흥미로운 주제의 다양한 기획 전시도 열린다. 약 991㎡(3백 평) 규모의 어린이 체험관은 아이들이 미술의 다채로운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형 공간이다. 올해는 외곽 모양의 놀이터와 만년 고자,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즐비한 산책길 등 실내 공간과 우산에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만드는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맛있는 꿈'을 진행한다. 문의 031-877-0500, www.artpark.co.kr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아름다운 날들의 기록>

지구의 경이로운 면면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아름다운 날들의 기록(The Beautiful Days)>이 10월 1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30만 명 규모의 관객을 동원한 지난 2010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행사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지구 곳곳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1백8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구와 환경,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날짐승과 벌레, 길짐승, 수중 생물, 풍경, 사람 등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5개 관에서 진행된다. 사랑스러운 날들의 기록(A관), 생명력 넘치는 날들의 기록(B관), 매력적인 날들의 기록(C관), 마음을 열어주는 날들의 기록(D관), 자연의 일부였던 사람들의 기록(E관) 등이다. 또 1백2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다큐멘터리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대표 작가들이 활동하는 생생한 촬영 현장을 볼 수 있는 특별관도 마련돼 있다. 공식 홈페이지 www.ngphoto.co.kr 에디터 **고성연**



유니크한 옵티컬 프린트로 스타일을 살린 면 재킷 99만원 **드리스 반노튼 by 분더숨 맨.**

Louis Vuitton



여행에서 모티브를 얻은 아메리칸 트립 브로치 세트 80만원대 **루이비통.**



코브라에서 영감을 받은 메탈 소재의 리빙 퍼퓸 1백70만원 **랑프베르제.**



창랑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겸 박스 45만원 **폴스미스.**



은은한 자개 장식을 연상케 하는 선글라스 1백만원대 **빅토리야 배킹 by 옵티칼 W.**



상선병을 발휘하게 하는 부티에 감돌펜 39만원 **프라다.**

for him Selection

이번 시즌은 프린트의 향연이라 할 만큼 유틸 넘치는 패턴의 아이템들이 가득하다. 기하학적인 옵티컬 프린트부터 아티스틱한 터치가 느껴지는 프린팅까지 스타일에 재미를 더해줄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네온 컬러의 굽이 유니크한 스트레이트 탑 슈즈 가격 미정 **미하리 아스히로 by 분더숨 맨.**



뱀가죽 패턴과 다이아몬드, 차보라이트, 투르말린, 그린 사파이어가 화려한 빅뱅 보아 뱀 워치 3천만원대 **워블로.**



해골 장식이 눈에 띄는 레드 컬러 명함 지갑 25만원 **알렉산더 맥퀸.**



펭귄 모티브가 독특한 와인 셰이버 19만5천원 **제이스트롱워터.**



별, 꽃, 체인 장식 등의 패턴이 핑키한 티셔츠 83만원 **지방시.**



브랜드의 시그니처 줄무늬가 새겨진 자동차 프린트의 토트백. 32X41cm, 69만원 **폴스미스.**



실버 소재를 파라메트릭 형태 디자인해 부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하리 아스히로 링 1백1만원대 **타카기.**

- 아쉬 070-8783-8686
- 프라다 02-3442-1830
- 워블로 02-3279-9074
- 타사키 02-3461-5558
- 분더숨 맨 02-3444-3300
- 루이비통 02-3444-1727
- 폴스미스 02-3447-0278
- 알렉산더 맥퀸 02-3479-1791
- 랑프베르제 02-3443-2943
- 옵티칼 W 02-3446-7725
- 지방시 02-6905-3664
- 제이스트롱워터 02-3449-4350
- 10 프르소 꼬모 02-3028-1010



아티스틱한 터치가 느껴지는 접시 31만원 **베에로 포르나세티 by 10 프르소 꼬모.**

스킨 장식이 포인트인 슬림은 40만원대 이상.

스타일리스트 유환진 에디터 권유진



종이를 구긴듯 연출한 패브릭이 멋진 클러치. 23.5x30cm, 94만원 질 샌더.



그레이트인 페인팅을 모티브로 한 수더민디 32만8천원 셀린도아.



버섯모티프를 스웨터로 표현해 위트를 더한 맨투맨 티셔츠 58만원 이쉬쉬 by 톰 그레이하운드.



18K 옐로 골드에 담수 진주를 세팅해 마치 식물에 가시난 것처럼 연출한 테인저 이어링 1백80만원대 타사키.



양방향 인형을 모티브로 한 워너브로커 49만원 마르니.

for her Selection

재미난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위트 있는 패션 소품은 평범한 룩도 특별하게 완성하는 마력을 지닌 아이템이다. 사랑스러움과 개성이 가득 묻어나는 패션 아이템으로 스타일에 활력을 더해보자.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심세한 스팅글과 여성스러운 실크를 접목한 클러치 3백만원대 에밀리오 푸치 by 무이.



진주와 화이트 스톤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선글라스 63만원 아모리르 by 10 프르소 꼬모.



공기 정화 작용과 발향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 장식용으로도 탁월한 리빙 파품 28만원 랑프베르제.

진주와 화이트 스톤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선글라스 63만원 아모리르 by 10 프르소 꼬모.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기 천사 프린트의 실크 원피스 1백97만원 돌체앤가버나.



강렬한 해골 모티브와 크리стал 장식의 핑거링 메탈 핑글 75만원 알렉산더 맥퀸.



양중맞은 고양이 모티브로 한 파우치 14만원 언더커버 by 톰 그레이하운드.



달콤한 향을 풍길 것만 같은 마카롱 드롭 이어링과 미니 마카롱 펜던트 버크리스 각 3천만원대, 2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클래식한 핑거링을 더한 워너브로커인 슈스가러 미싱 슈어 워너브로.



도트 패턴으로 경쾌함을 더한 쿠시마 아이오이 컬렉션 라켓백 4백50만원대 루이비통.

- 펜디 02-514-0652
- 마르니 02-3445-3664
- 셀라도어 02-3449-4350
- 질 샌더 02-546-3068
- 10 프르소 꼬모 02-3028-1010
- 무이 02-3446-8074
- 돌체앤가버나 02-3444-0077
- 알렉산더 맥퀸 02-3479-1791
- 루이비통 02-3444-1727
- 부세론 02-543-6523
- 준와와타나베 02-432-1854
- 랑프베르제 02-3443-2943
- 타사키 02-3461-5558
- 톰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럭셔리 브랜드들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Jean-Marc Gady

공간 인테리어나 윈도 디스플레이부터 꽃병, 향수병 같은 소품, 의자와 선반 등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장르를 섭렵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프랑스 디자이너 장마크 가디(Jean-Marc Gady). 생 라자르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만난 그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깍쟁이 파리지앵 같은 의모와 달리, 무뎠고 성실한 '일꾼형' 디자이너였다. 게다가 아무리 지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한다는 '패밀리맨!' 반전의 매력을 지닌 이와의 만남은 생쾌한 여운을 느끼게 한다.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 절대로 선입견을 갖지 말자고 거듭 다짐을 하면서도 내심 큰 기대를 품게 되는 인물이 있다. 그런데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서인지는 몰라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와 반대로, 사진으로 접한 인상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반가운 반전이 때때로 찾아온다. 루이 비통, 샤넬, 비카라 등 쟁쟁한 명품 브랜드와 함께 펼쳐온 작업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프랑스 디자이너 장마크 가디는 단연코 후자에 해당된다. 그의 세련된 넘치는 우아한 작품들과 얼굴의 매끈한 'V라인'이 빛어낸 역효과였을까. 웬지 예민하고 까다로운 것 같은 인상을 받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꾸밈없이 상냥하고 온화한 성격이 호의를 품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다가가기 편한 경쾌함을 지니되 경망스럽지 않고, 다방면의 주제를 건드리며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무난한 대화 상대자이지만 결코 식상하거나 지루하지 않은, 잔잔한 매력의 소유자라고 할까.

자신의 캐릭터처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온 성실한 커리어

이같이 무뎠던 그의 캐릭터는 커리어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 혜성처럼 떠오르는 않았지만 꾸준한 성실함으로 업계에서 인정받은 장마크 가디는 해를 거듭할수록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71년생인 그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한 건 30대 중반이던 2005년. 나만의 브랜드를 내걸고 일한 지 이제 8년째다. 그동안 그의 고객 명단에는 샤넬, 디올, 켈랑, 비카라, 모엣 & 샹동, 디퐁 등 듣기만 해도 화려한 브랜드들이 이름을 올렸다. 럭셔리 브랜드들의 왕국이라 해도 무방한 프랑스 출신이니 딱히 놀랄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가 유난히 명품 브랜드들과 작업을 많이 한 배경에는 루이 비통과의 인연이 버티고 있다. 1996년 프랑스 디자인 학교 레콜 블루(L'École Bleue)를 졸업한 뒤 디자인과 머천다이징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발로 뛰다가 2001년 루이 비통의 윈도 디스플레이와 각종 행사 기획을 담당하는 아트 디렉터를 맡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4년 넘게 루이 비통과 함께하면서 아시아 주요 도시를 무대로 한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동양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누렸고, 덕분에 시야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아시아를 관찰하면서 느낀 건 '올드와 뉴의 조화와 재해석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상하이라는 도시는 그 경관 자체로도 옛 것과 새 것의 상반된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유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아시아 디자이너들을 보면서 영감도 많이 받았습시다. 현재 아티스트들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창출해내는 동서양의 조화도 참으로 매력적이고요." 그는 2006년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루이 비통 매장 개점을 축하하는 파티를 담당하며 대만계 아티스트 미야를 만나 협업을 했는데, 원형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고 LV 모노그램에서 형태를 딴 꽃을 연상케 하는 문을 들여놓은 실내장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일하면서 느낀 또 한 가지는 시간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과제도 막상 당일엔 실현된 걸 보는 게 신기했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싱긋 웃었다.

루이 비통과 조우하며 시작된 명품 브랜드와의 끈이지 않는 인연

이처럼 막강한 브랜드와 오랜 인연을 쌓다 보니 명품업체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진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른다. 그 결과, 장마크 가디의 전매특허 디자인처럼 여겨지는, 비즈니스 누운 스타일을 멋지게 소화한 크리스탈 꽃병 '암포라(Baccarat, 비카라)'라든지, 기술자가 튜브로 흑 후는 방식으로 만들어 저마다 모양새가 살짝 다른 파이렉스 소재의 커피 머그 '에어립(Ligne Roset, 리네 로제)', 그리고 식기 브랜드 크리스토폴의 플래그십 매장을 근사하게 수놓은, 용 겹칠처럼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크리스마스 윈도 디스플레이 등이 탄생했다. "특히 럭셔리 분야를 공략해야겠다는 전략적인 의도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루이 비통과 함께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그쪽 업계와 친숙해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원래 그렇게 '럭셔리'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게다가 예술적인 영감을 댄답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지도 않았다고. "그럼 그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했지만 집안 환경이 예술과 거리가 멀었고,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학교에 갔고, 나중에야 디자인을 공부하게 됐죠. 사실 원래는 광고나 저널리즘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글쓰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창의성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길 깨달았어요." 어쨌거나 그는 늦게나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뒤 수확한 모교 레콜 블루에 2008년부터 출강하고 있다. 학생들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가르치는 일도 즐겁고, 튜브를 만드는 일도 좋아한다는 그는 바쁜 와중에도 개인적으로 짬을 내 굳이 고객이 주문한 일이 아니라도 혼자만의 작업에 도전하곤 한다. 자신 안에 내재된 실현 정신과 미적 감수성을 결과물로 표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장마크 가디가 자신 속에서 들끓는 열정과 미학을 제대로 펼쳐 보인 기회는 2009년 뉴욕에서 열린 최초의 개인 전시회 ('프렌치 칸강(French Cancan)')이어서 여겨진다. 흥겨운 칸강 춤을 추며 차마가 활짝 펼쳐질 때의 느낌을 표현한 작품인 '칸강 램프'를 바로 이 전시회에서 선보였고, 이는 그에게 잘 맞는 옷을 입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층 높아진 명성을 선사했다. 그는 섬세하게 주름 잡힌 각각의 전등갓이 하나의 비취처럼 동그랗게 연결된 이 램프를 만드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고 회상한다. "단지 하나가 아니라 똑같은 모양의 전등갓을 여러 개로 복제할 때 전혀 색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게 좋았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주름을 잡아나가는 수작업으로 전등갓을 다수 만들고 다시 이들을 연결해 1.8m의 큰 갓을 만든

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같은 배가(multiplication)의 개념을 적용한 또 다른 작품이 크기가 제각각 다른 여러 개의 접시를 하나로 이어 붙인 '고메(Gourmet)'다. 다양한 음식을 한데 담아 편하게ناول 수 있도록 고안했다는 이 실용적인 접시는 다양한 크기로 나와 있어 휴식나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사뭇히 불식시킨다.

절제된 단순미 속에 꿈틀거리는 순수한 관능미

다소 주관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장마크 가디의 작품 스타일은 그다지 장식적이거나 기교적이지 않은데도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을 달궜던 아르누보의 미학을 연상케 한다. 우아하고 간결한 곡선 속에는 절제된 단순미가 다분히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프랑스식 아르누보의 화려하고 유려한 느낌이 은근히 배어 나온다. 세련된 모더니티가 물론 쏠려 나오면서도 순수한 고전미가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장마크 가디식으로 해석한 '프랑스인다운' 디자인 세계일까. 이에 대해 그는 "내게 프랑스적이라는 건 역사와 우아함, 미, 노하우, 패션 등을 뜻하고, 개인적으로 프랑스 문화와 파리를 굉장히 사랑한다"며 "나 자신이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젊은 피를 키우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선정해 각종 활동을 지원해주는(한국의 디자인진흥원과 비슷한) 기관인 VIA의 후원 프로그램 수혜자다. 그는 VIA 프로젝트의 하나로 연구했던 계단식 수납 선반 '줄리엣(Juliette)'을 무려 10여 년 만에 제품으로 내놓는 결실도 최근 맛보았다. "사실 루이 비통을 통한 커리어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것도 VIA라고 할 수 있죠. 저는 VIA의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 4개를 진행했는데, 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작품을 보고 루이 비통에서 연락을 해온 것일 테니까요." 그는 다문화적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선배답게 "최근 젊은 프랑스 디자이너들의 감각이 고무적인 정도로 훌륭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조언했다. 그는 자신이 영향을 받은 주요 선배 디자이너 중 하나로 프랑스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스타 디자이너로 통하는 필립 스타크를 꼽는다. 약간은 뻔한 대답에, 스타크의 전성기는 지나가지 않았냐고 묻자 "하지만 그는 이미 한 시대를 멋지게 수놓지 않았냐"며 그의 작품 중 하나인 호텔 마마셸터(Mama Shelter)에 꼭 봐보고라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마마셸터는 파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타크 특유의 유틸 넘치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더불어 활기 넘치는 바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파리지앵 디자이너의 끈임없는 열정과 진정한 포부

사실 호텔 디자인은 장마크 가디가 품고 있는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저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걸 즐기는 편인데, 언젠가 큰 작든 호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호텔의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뜻하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부분뿐 아니라 호텔에 속한 모든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거든요." 하지만 작은 공방 같은 정겨운 분위기를 사랑하는 그는 결코 자신의 스튜디오를 크게 키우기를 꿈꾸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만약 15~20명 규모를 넘어가면 나만의 고유한 창의성을 잃을 수 있기에 더 이상 감정하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아서"라고. 그런데 호텔의 야망에 도전하기 전에, 짐값대리가 될 만한 흥미로운 일거리가 그 앞에 놓여 있다. 바로 파리의 유명한 카페이자 레스토랑인 맥시(Maxim's)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다. 서울, 방콕, 상하이 등에 들어설 맥시는 최근 한국에서 개방에 실속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 등장하는 전설의 명소. 서울에 들어설 맥심이 과연 어떻게 꾸며질지 궁금해하자 그는 "흰 대리석 소재의 바닥에 아르누보 스타일의 우아한 조명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놓쳐 아지 서울 땅을 밟아보지 못했더라 아쉽다는 장마크 가디는 한국인 디자이너를 자신의 스튜디오에 채용할 적도 있다고 한다. "그 친구가 책꽂이를 만든 걸 보고 감탄해 제가 직접 뿔았죠.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어요. 저도 다시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건 고객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 파리지앵의 행보가 자못 기대되는 건 '척하는' 태도 없이 디자이너로서의 자긍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발산하는, 열린 자세 때문이 아닐까 싶다. 디자이너인 동시에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버지 가장으로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게 되면 배사에 유연하고 융통성을 가지되, 창조적 영혼으로서의 자존감이 꺾을 정도로 유연해서가 안 된다라는 소신을 지키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닐 테니까. **8** 에디터 **고성연**(마리 한지 취재)

7 크리스탈 브랜드 비카라(Baccarat)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꽃병 '암포라(Amphora, 2008)'. 장마크 가디 특유의 비스듬하누워 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8** 매력적인 빨간색 계열의 브랜드 로고 장식으로 이뤄진 루이 비통 **도르** 매장의 인테리어(2008). **9** 스키 브랜드 크리스토폴(Christofle)의 플래그십 매장을 근사하게 장식한 크리스마스 윈도 디스플레이 (2009). **10** 실용적인 작업에서 탄생한 막대 모양의 향광등 '캔디 케인(Candy Cane, 2010)'. **11** 2009년 뉴욕에서 열린 최초의 개인 전시회 ('프렌치 칸강'에서 선보인 칸강 램프. 칸강 춤을 추며 차마가 활짝 펼쳐지는 느낌을 잘 살린 수작. **12** 계단식 수납 선반 '줄리엣(Juliette, Harto Design, 2011)'. 사진 제라미 윌라르(Jeremie Willard).

사진 제공 Studio Jean-Marc Gady(www.jeanmarcgady.com)



PRADA



DOLCE & GABBANA



LOUIS VUITTON

2012 F/W Best Look

패션 판타지를 엿볼 수 있는 파리 컬렉션부터 파워풀한 여성상을 그려낸 밀라노 컬렉션, 미니멀리즘의 중심지 뉴욕 컬렉션, 한층 모던해진 스트리트 감성을 표현한 런던 컬렉션까지, 패션에 대한 상상력과 현실성, 다이내믹한 요소를 집약한 2012 F/W 빅 브랜드들의 기록.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다

이번 시즌엔 고전적인 바로크 시대부터 큐투르적인 1950~60년대, 컨트리풍의 1970년대, 모던 룩의 1990년대와 스트리트 감성이 충만한 현재, 비현실적인 미래까지, 과거·현재·미래가 혼재된 다양한 스타일을 만날 수 있다. 낭만주의가 지배한 바로크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돌체앤가바나**는 바로크의 거울과 프레임을 연상케 하는 금빛 자수 디테일과 명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기 천사 프린팅을 더한 의상으로 장식적인 컬렉션을 완성했다. **프라다**는 19세기 고전적인 남성복에서 가져온 모티프를 그래픽적인 요소를 통해 모던하게 재해석해 비디오패에 나올 법한 옵티컬 프린트, 스와로브스키, 스톤 등의 장식이 어우러진 3차원적인 룩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리 플랫폼의 화려한 여한자를 재현한 **루이 비통**은 우아한 A라인 실루엣의 레트로풍 울 코트를 키 룩으로 꼽았다. 코트의 좁은 어깨와 소매, 카다란 라벨, 꽃 문양의 보석 단추가 조화를 이룬다. **질 샌더** 컬렉션은 1950년대의 레이디라이크 룩을 미니멀하게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다. 오버사이즈 코트, 라제리 드레스, 볼룸 스커트에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를 입혀 여성미를 극대화했다. 원석의 카팅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과 신세탁 소재로 미래 지향적인 크리스털 왕국을 표현한 **샤넬**은 이번 컬렉션을 통해 기존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의상을 탄생시켰다. 팬츠, 재킷, 짧은 원피스로 이루어진 수트와 핀타 코트라 불리는 긴 여성용 외투, 다리 부분의 지퍼를 내리면 외투가 되는 보디슈트가 바로 그것. **디올**은 남성적인 테일러링 코드에 발레리나의 여성스러움을 더해 부드러운 모더니즘을 컬렉션에 반영했다. 절제된 세이프의 재킷과 플리츠스커트, 이브닝 드레스가 대표 룩이다. **버버리 프로섬**은 한팅과 승마라는 클래식한 요소에 레이디라이크 룩을 접목해 영국의 정체된 헤리티지 룩을 모던한 느낌으로 재해석했다. 트렌치, 퀴트드 재킷 등 아우터가 중심을 이루며 여가 러플 펜슬 스커트, 페플럼 장식을 더해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JIL SANDER



CHANEL



DIOR



BURBERRY PRORSUM



강인한 여성상을 엿보다

유로 존의 침체된 경제 상황 때문일까. 디자이너들은 한층 파워풀해지고 남성적인 성향을 지닌 여성의 모습을 트렌드로 내세웠다. 남성복에 많이 쓰는 소재와 클래식한 남성복이 영감의 원천으로 등장한 것. 폴 스미스는 모던하고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심플한 오버사이즈 이터와 큰 주름이 있는 트라우저를 키 아이템으로 소개했으며, YSL은 1970~80년대를 결합한 파워 우먼 룩을 선보였다. 강인하게 표현한 파워 숄더 재킷과 테일러드 슈트, 하이 웨이스트 팬츠가 대표적이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역시 컬렉션 전반적으로 매니시함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서 여성스러운 섬세함과 가벼움을 놓치지 않았다. 남성의 드레스 슈트를 연상케 하는 에나멜 슈트, 완벽하게 재단한 슈트에 채도 높은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매치해 상반된 요소를 조화롭게 믹스했으며, 남성 액세서리인 행커프는 꽃 모양의 브로치나 모던한 스퀘어 브로치로 재탄생도였다. 1940년대 클래식한 브리티시 룩을 모티브로 한 랄프로렌은 체크 프린트의 울 슈트에 넥타이, 브리프케이스까지 매치해 남성 컬렉션을 연상케 하는 매니시 룩으로 주를 이뤘다. 승마도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구찌는 19세기 호화로운 낭만주의적 요소에 브랜드의 원천인 밀리터리와 승마를 접목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승마 팬츠, 오버사이즈 코트, 케이프 등이 메인 아이템으로 등장하며 브라운, 퍼플 등의 다크 톤을 베이스로 깃털, 레더, 모피 등의 하이엔드 소재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에르메스 역시 승마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레더와 니트로 제작한 케이프와 가우초 팬츠, 에스닉 프린트를 활용해 귀족적으로 풀어냈다. 이번 시즌에도 레더, 퍼 등의 하이엔드 소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컬렉션이 펜디다. 첫눈이 오기 직전 숲의 공명에서 영감을 받은 펜디는 몽골리안 울, 라쿤, 악어 그리고 다양한 야국적인 가죽을 컬렉션에 사용했으며 특히 옐로 카무플라주 모피 코트는 한 마리의 새를 연상케 해 눈길을 끌었다. 에디터 권유진





truly splendid

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투명한 다이아몬드와 오팔, 화이트 골드로 가득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하이주얼리의 세계.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청명한 블루 컬러의 36캐럿 블루 토파즈를 볼드하게 세팅한 라임 라이트 파티 하이주얼리 링. 메인 스톤을 감싼 마운팅의 레이스 패턴을 모두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피아제**, 반원이 비대칭적으로 서로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와조 드 파라디 네크리스. 식물 줄기가 꼬인 듯한 유선형 디자인이 아름답다.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연결한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의 네크리스 **타파니**. 5.25캐럿 쿠션 셰이프 다이아몬드에 앙양으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주얼리 링 **불가리**. 14.76캐럿에 달하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78캐럿 퍼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5캐럿 이상의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라워 모티브 네크리스 **불가리**. 다이아몬드와 투명한 록 크리스탈, 화이트 오팔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투명한 아름다움을 완성한 네크리스. 마치 화려한 숲 장식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피아제**, 화이트 골드에 사파이어, 애머시스트, 투르말린을 컬러풀하게 세팅한 이어링. 마치 동전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디자인이다. <이러버인나이트>에 등장하는 세헤라자데에서 영감을 얻었다. **부쉐론**. 클래식하고 볼륨감 넘치는 컵 스타일의 마이클 팬더 이그라프 하이주얼리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에 1천9백2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33.35캐럿을 세팅했다. **까르띠에**. 화려하고 세심한 깃털 모티브의 볼륨감 넘치는 플롬 브로치. 1.86캐럿에 달하는 24개의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 1천1백60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5.85캐럿을 세팅했다. **샤넬 화인주얼리**. 블랙 헤마타이트 비드 네크리스에 그레이·브라운·블랙 다이아몬드를 깃털처럼 정교하게 세팅한, 볼륨감 넘치는 페더 네크리스 **타사키**. 에디터 **베미진**

불가리 02-2056-0172 **까르띠에** 1577-7277 **타사키** 02-310-1854 **타파니** 02-547-9488 **피아제** 02-3449-5934 **부쉐론** 02-543-6523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샤넬 화인주얼리** 02-3442-0962

Jewel attraction

주얼리의 세계에 가장 먼저 데뷔한 샤넬부터 섬세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루이 비통과 구찌의 주얼리까지 패션 하우스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득 담아 선보이는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트 모양과 루이비통 삼발을 조합한 퀘에르 펜던트 5백만원대, 옐로 골드에 브랜딩 모티프를 표현한 앙프렐트 네크리스 4백80만원대 모두 **루이 비통**, 두 개의 링을 함께 착용하는 키오도 다이아몬드 링 5백16만원,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43개를 세팅한 키오도 다이아 네크리스 3백30만원 모두 **구찌타입피스앤주얼리**, 샤넬의 상징인 별 모티프를 세팅한 꼬메트 나베트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5.4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샤넬 화인주얼리**, 화이트 골드에 72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링 4백4만원, 화이트 골드에 브랜딩 삼발을 새긴 링 1백75만원 모두 **구찌타입피스앤주얼리**, (네크리스 안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디올 고유의 까나주 패턴을 18K 골드로 정교하게 표현한 마이 디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얇은 반지를 여러 겹 레이어링한 듯한 링에 브랜딩 로고를 참 장식처럼 달아 윗에 디자인한 모노그램 링 5백70만원대 **루이 비통**, 까나주 패턴의 마이 디올 골드 링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화려한 핑크 컬러의 유색석으로 샤넬 고유의 까멜리아 꽃을 표현한 까멜리아 로즈 링, 2.7캐럿에 달하는 핑크 사파이어 주변을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핑크 사파이어가 감싸고 있다. 가격 미정 **샤넬 화인주얼리**, 화이트 골드에 구찌 로고를 새긴 트릴 이어링 1백32만원 **구찌타입피스앤주얼리**, 에디터 배미진

샤넬 화인주얼리 02-3442-0962 **루이 비통** 02-3432-1854
디올 파인주얼리 02-513-3232 **구찌타입피스앤주얼리** 02-551-7045

Lord of the bags

남들과는 다른 럭셔리함을 추구하고 싶을 때 선택하게 되는 이그조틱 레더 백. 특히 악어 가방은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테일과 견고함, 희소성,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탄생하기 때문에 1천만원, 심지어 3천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도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남다른 심미안을 갖춘 럭셔리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악어 가방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발리 모리츠 마드리엘레 백 브랜드의 아이코닉 라인인 모리츠 컬렉션 디자인을 럭셔리한 악어가죽으로 재해석한 마드리엘레 백. 크레스트 문장이 새겨진 체인 버클 장식이 포인트이며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이 있어 토트백 혹은 숄더백으로 연출 가능하다. 26X19cm 1천1백만원대. 문의 02-2163-1132

루이 비통 에센셜 백 최고급 악어가죽에 정교한 스티칭, 골드 메탈 디테일, 브랜드 고유인 S-룩 잠금장치로 럭셔리함을 더한 수할리 엘라게이터 숄더백. 모던한 스퀘어 디자인에 가방 가장자리를 곡선 형태로 처리해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32X29cm 3천만원대. 문의 02-3444-1727

퀵엔 라플즈 백 브랜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라인으로 탈착 가능한 긴 숄더 스트랩이 내장되어 숄더는 물론 크로스 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주름 장식과 모던한 필라동 메탈 장식이 고급스럽다. 29X24cm 8백만원대. 02-6905-3529

낸시 곤잘레스 버드 사철 백 주름 장식을 더해 폐미난한 느낌을 강조한 버드 사철 백. 지퍼 개폐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한 것은 물론,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이 있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2X29cm 6백만원대. 문의 02-6905-3774

구찌 소프트 스타리프 백 말동자 버클이 눈에 띄는 소프트 스타리프 백. 악어가죽을 부드럽게 처리해 유연한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빅 사이즈임에도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42X23cm 가격 미정. 문의 02-516-1411

말프로렌 컬렉션 리키 백 견고한 가죽과 디자인으로 우아함과 세련미를 강조한 리키 백. 브랜드의 시그니처 라인이자 베스트셀러로 하이엔드 가죽 소재를 사용해 럭셔리함을 부각시켰다. 오디 메이드로 특별 제작하며 가방 안에 부착된 장식 판에 자신만의 메시지를 새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35X27cm 2천3백30만원. 문의 02-545-8200

비엘타 카이만 쇼퍼백 카이만 악어가죽을 사용해 제작한 심플한 디자인의 스퀘어 토트백. 악어가죽의 텍스처를 살려 특별한 장식 없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며 깔끔한 디자인이 클래식하다. 수납공간이 넉넉해 오피스 레이디에게도 제격이다. 35X32cm 1백80만원. 문의 02-6160-0202

잘리아니 쿠마 백 고급스럽고 세련된 다크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쿠마 백. 1개의 핸들 디자인이 유니크하다.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수납공간,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실용성까지 겸비했다. 36X25.5cm 2천9백40만원. 문의 02-6905-3752

콜롬보 로라 클러치 백 클러치 중앙의 버클 장식과 독특한 셰이프를 포인트로 준 로라 클러치 백. 악어가죽 특유의 각이 잡힌 디자인 대신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제작해 일반 사각 프레임 클러치보다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탈착 가능한 숄더 체인이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34X18cm 1천5백만원대. 문의 02-6905-3660 에디터 권유진



enrichment Serum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느끼게 하는 요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전 들쭉날쭉한 피부 상태를 안정시킬 특효약이 간절하다. 메마르고 푸석한 피부에 윤기와 촉촉함을 선사해줄 고농축 제형의 기능성 세럼이 필요할 때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SK-II 링클 스페셜리스트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환경에는 잘 보이지 않던 잔 주름이나 표정 주름이 도드라지게 마련이다. 이럴 때는 주름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세럼으로 집중 케어해줄 것. 독자적인 피테라™ 성분이 주름 사이사이를 메워 피복결을 매끈하게 정돈시킨다. 일주일에 1~2회 팩과 같이 두껍게 바르고 지면 피부 재생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25g 15만원대. 문의 080-023-3333

에스티 로더 퍼펙션리스트 CP+R 링클 리프팅 피밍 세럼 첨단 이디노신과 단백질 복합체가 피부 본연의 콜라겐 생성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무너진 얼굴 라인의 윤곽을 또렷하게 되살려준다. 약제 반창고처럼 바르는 즉시 매워지는 콜렉시블 엘라스토머 기술은 움직임에 의한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50ml 18만5천원. 문의 02-3440-2772

슈에무라 오로라 에센스 가볍고 촉촉한 젤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탄력과 결, 광채를 되살리는 에센스.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워 생기를 되찾아주는 람노스 성분과 피부 표면의 미세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하는 헤페이스 성분 스트레스로 윤기 잃은 피부를 맑게 해준다. 30ml 9만8천원. 문의 080-022-3332

조르지오 아르마니 리젠에센스 유스 재생 세럼 브랜드의 독자적 재생 성분인 프록살린, 아미씨 추출물, 비타민 C가 3개의 피부층을 공격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재생 에센스. 시원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부드럽고 가벼운 젤 텍스처는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되어 촉촉함을 남긴다. 30ml 14만원. 문의 080-022-3332

디올 캡춰 XP 업티딤 딥 링클 코렉션 나이트 컨센트레이티드 주름이 자리 잡기 쉬운 눈가와 입가 주변에 필러를 맞춘 듯한 효과를 선사하는 고농축 링클 케어 세럼. 히알루론산을 풍부하게 함유해 세포가 재생 활동을 하는 밤사이 탁월한 재생 효과를 발휘한다. 다른 세럼과 함께 사용해도 좋은 만큼 촉촉한 텍스처가 일품이다. 30ml 16만5천원. 문의 02-3438-9537

갈랑 수퍼 아쿠아 세럼 메이크업이 쉽게 들뜨고 피땀결이 까칠하다면 수분 공급이 절실하다는 신호다. 이럴 때 수분 공급에 충실한 세럼으로 집중 관리해줄 것. 히알루론산 수치를 20% 증가시키는 아쿠아 콤플렉스가 피부 속 수분 보유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30ml 19만6천원. 문의 02-3438-9627

시세이도 리바이탈 화이트닝 세럼 AA EX 안티에이징과 화이트닝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어 하는 여성을 위한 세럼. 김비르 추출물과 비타민 C 에틸이 피부 깊숙이 자리 잡은 멜라닌의 색을 없게 만들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하는 카슈무나 추출물 G가 주름을 팽팽하게 펴준다. 40ml 21만원. 문의 02-3456-0174

아모레퍼시픽 퓨처 레스폰스 에이지 디펜스 세럼 자외선, 공해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부 밀도를 탄탄하게 다지는 주름 기능성 안티에이징 세럼.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성분 퓨처 레스폰스 콤플렉스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증상이나 뿌옇지 같은 트러블을 예방한다. 30ml 22만원대.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이예진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세럼** 노화의 원인인 자외선, 공해, 스트레스 등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세럼. 녹차라는 평범한 성분을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술로 농축해 고귀한 성분으로 재탄생시켰다. 녹차의 정수라고 불리는 녹차 스템 셀, 녹차 사포닌, EGCG 등으로 구성된 어드밴스드 타임 레스폰스 콤플렉스가 아침저녁으로 피부를 재생시킨다. 30ml 55만원. 문의 080-023-5454

다올 로드비 라 크렘 마사지도 어려운 사토 디캄의 포도나무 원액을 담은 인티에이징 크림을 피부에 바르는 호사를 누리볼 것. 포도 당굴의 수액에 들어 있는 미아베놀 C와 폴리페놀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된 세포를 되살리고 윤기가 돌게 한다. 피부가 부쩍 건조해졌다가 각질이 일어날 때는 두껍게 발라 마스크 팩처럼 활용해도 좋다. 50ml 46만5천원. 문의 02-3438-9537

갈랑 차세대 오이드 임페리얼 컨센트레이트-데일리 엠플 갈랑을 대표하는 차세대 오이드 임페리얼 분자 추출물로 이뤄진 트리트먼트. 10년이 넘도록 오이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갈랑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진보된 오이드 성분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세포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차세대 오이드는 여섯 가지 장수 메커니즘을 적용해 젊고 건강한 피부의 시간을 연장시킨다. 30ml 64만8천원. 문의 02-3438-9627

라프레리 스킨 케비아 리퀴드 리프트 케비아 리노의 명성을 이을 이 세럼은 그동안 선보인 어떤 제품보다 순수하고 밀도 높은 금빛 케비아 추출물을 담았다. 여기에 피부 구조를 견고하게 해주는 리카버리 콤플렉스의 시너지 효과로 주름 생성을 예방하고 리프팅 효과를 선사한다. 50ml 59만7천원. 문의 080-511-6626

랑콤 암슬뤼 렉스트레 장미에 대한 랑콤 연구소의 열정이 담긴 이 크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2백만 개의 장미 줄기 세포와 첨단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탄생했다. 리치한 크림 텍스처는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게 스며들어 촉촉함을 남기며 밤사이 숙면을 취한 듯 생기 있는 피부로 되돌린다. 50ml 52만원. 문의 02-3497-9829

에스티 로더 라-뉴트리브 얼티메트 리프트 에이자-코렉팅 크림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탄생한 라이프 라-뉴잉 분자와 브라질의 광산에서 채굴한 진귀한 성분인 블랙 투르말린을 조합한 재생 세럼. 이 두 가지 복합체는 새로운 콜라겐을 생산하도록 유도해 피부 조직을 쫘뼛하게 다져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얼굴 라인을 되살린다. 30ml 39만원. 문의 02-3440-2772

골레드브 보네 라 크렘 출시 30주년 기념 한정판 착취한 피부 톤, 주름, 탄력 저하 등 다양한 노화의 징후에 빠르게 대응하는 인티에이징 크림. 피부 속부터 광채가 올라오도록 하는 '빛 세포' 생성을 위해 천연 진주와 최고급 실크에서 추출한 성분을 담았다. 이 두 성분은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아주 유사해 피부에 걸들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는 우수한 피부 친화력이 특징이다. 50ml 1백만원. 문의 02-3438-6032

샤넬 수블리미지 에센셜 리바이탈라이징 세럼 피부 속 독소를 제거하고 대사를 정상화하는 재생 에센스. 샤넬 연구소가 개발한 활성 성분인 골드 참파 PFA는 손상된 세포 독소를 빠르게 없애고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성을 증가시켜 피부가 활성 성분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다져준다. 30ml 50만5천원. 문의 080-332-2700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레마네라 울사디엔 미네랄 리스토어링 크림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진귀한 성분을 찾기 위해 지중해의 화산섬 핀텔레이아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흑요석과 미네랄 성분을 농축시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재생 미네랄 크림을 완성했다. 흑요석은 건강한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피부 탄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50g 30만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the highest Ingredients

화장품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뭘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성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오랜 시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탄생한 하이엔드 성분은 제품의 신뢰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진보된 기술력을 경험케 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EXOTIC LEATHER BAG

(위부터 아래로) 보티가 베네타 브라운 솔더백
수직선으로 장식한 엠브로이더리 레이스 가죽
장식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더한 솔더백 25X21cm
가격 미정. 문의 02-515-2717 **탈프렌 컬렉션**
리키 백 약 50개의 가죽 조각과 9개의
하드웨어를 사용해 우아함을 강조한
엘리베이터 토트백 33.5X27cm
2천8백50만원. 문의 02-
545-8200 **잘리아니 퍼피 백**
부드럽게 가공한 비단뱀가죽을
볼륨감 있게 연출한 토트백
43.5X34cm 7백50만원
문의 02-6905-3752

EVERYDAY BAG

(왼쪽부터) **필로에 앤지 백** 핑크빛이 도는
오렌지 컬러가 사랑스러운 양가죽 토트백.
탈착 가능한 어깨끈이 있다. 31X34cm
2백98만원. 문의 02-543-1737
디올 디올리시모 백 부드러운
송아지가죽과 브랜드 로고 참이
고급스러우며 넉넉한 내부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토트백 40X27cm
4백만원대. 문의 02-513-3232



스타일리스트 유한정 에디터 권유진

the town bag F/W 2012

매 시즌 선보이는 뉴 백(new bag)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다면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트렌디한 요소와 실용성까지 겸비한 가방들이 쏟아지는 이번 시즌이 쇼핑 적기다. 당신의 지갑을 열게 할 2012 F/W 남녀 가방 신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RETRO MOOD BAG

(왼쪽부터) **프리다 스파글라토 백**
풍부한 색감과 은은한 광택이 도는
소가죽 소재가 조화를 이룬 토트백
36X27cm 2백만원대. 문의 02-
3442-1830 **루이 비통 레오파드**
스피디 노스사우스 백 벨벳 느낌의
자카드 소재에 레오파드 패턴을 매치해
세련미를 더한 토트백 54X40cm
4백10만원대.
문의 02-3432-1854

SQUARE TOTE BA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펜디 투 주르 백** 미니멀한
스퀘어 라인이 돋보이는 소가죽 토트백으로 미디어
사이즈에는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라지 사이즈는 백의
옆면을 펼치고 담을 수 있는 후크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36X28cm 2백83만원. 문의 02-514-0652
구찌 듀얼리모 탑 핸들 백 말동자 장식과 빛바랜 듯
빈티지한 컬러가 매력적인 부드러운 송아지가죽 소재
토트백 32X29.5cm 4백만원대. 문의 02-516-1411
볼가리 세르펜티 핸드백 화이트·라이트 골드 컬러의
코일을 교차해 장식한 핸들과 뱀 모티브의 지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송아지가죽 토트백 32X24cm
4백만원대. 문의 02-2056-0172



REASONABLE BA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MCM 퍼스트 레이디 스몰 보스턴 백** 악어 가죽 패턴과 클래식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딥 그린 컬러의 퍼스트 레이디 스몰 보스턴 백 35X24cm 70만원대. 문의 02-540-1404 **나나리치 젤마 백**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한 엠보 소재를 사용해 실용성을 강조한 블루 컬러 토트백 26X24cm 49만5천원. 문의 02-6905-3585 **코치넬리 파로마 파이론 백** 클래식하면서도 벨가죽 엠보를 더한 소가죽 소재의 플립 세이프 크로스 백 35.5X32cm 81만원. 문의 02-3469-2599



SOFT BIG BAG

(위부터) **헨리 베글린 알반사울 인트레치오 백**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출시한 스페셜 에디션 백으로 천연 염색한 고급스러운 색감이 돋보인다. 30X33cm 2백80만원대. 문의 02-547-0076 **토즈 마키 백** 넉넉한 수납 공간과 부드럽게 처지는 소가죽 소재가 고급스러운 토트 겸 숄더백 38X33.5cm 2백17만원. 문의 02-3438-6008



STUD POINT BAGS

(위부터) **알렉산더 왕 로키 백** 미니 사이즈로 재탄생한 선명한 레드 컬러의 스테드 장식 토트백.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다. 26X24cm 1백19만원. 문의 02-3446-7729 **발렌티노 락스터드 백** 가장 가장자리에 스테드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어 묵직한 무드를 더한 스웨이드 숄더백 32X26.5cm 3백20만원. 문의 02-543-5125



MINI BA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보이시벨 백** 엠보싱 처리한 패턴이 유니크한 송이자기족 체인 숄더백 20.5X12.5cm 가격 미정. 문의 02-546-0228 **에르메스 에블린 백** 퍼플 컬러의 스트랩이 포인트인 미니 사이즈 숄더백 17X18cm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YSL 카바시크 백** 시즌 컬러인 화사한 핑크 컬러에 브랜드의 시그니처 알파벳인 Y자 골드 메탈 클로저로 포인트를 준 토트 겸용 숄더백 30X22.5cm 2백30만원대. 문의 02-549-5741



SQUARE BAG

(왼쪽부터) 에르메네제일로 제나 듀오 토트백 수작업으로 광택을 낸 가죽 디테일과 타탄 체크 패턴이 멋스러운 울 소재 토트백 40X42cm 2백만원대. 문의 02-2016-5325 루이비통 삭플랫 백 최고급 노매드 가죽을 사용해 모던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한 토트백 36X37cm 3백60만원대. 문의 02-3432-1854



BUSINESS BA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나리치 맨 블루 토트백 그림감이 좋은 볼륨감 있는 핸들과 군더더기 없는 클래식한 디자인, 세련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토트백 39X30cm 40만원대. 문의 02-6905-3471 MCM 미디엄 슬림 메신저 백 크로스로드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선명한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메신저 백 31X24cm 40만원대. 문의 02-540-1404 닥스 액세서리 에디션 버러 리지 백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생백에 사용된 타일 문양을 응용한 DD 패턴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한 토트 백팩 29X39cm 42만8천원. 문의 02-515-9895



CLASSIC BA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옴므 브리프 케이스 매끈한 광택이 느껴지는 송이자기족 미니 사이즈 브리프 케이스 29X22cm 2백만원대. 문의 02-513-3232 할프 로렌 퍼플 라벨 트리플 거넷 소프트 브리프 케이스 엘라게이터 소재가 럭셔리한 쿠퍼 록 장식의 브리프 케이스 39X30cm 2천6백80만원. 문의 02-545-8200 프리다 시피아노 백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한 시피아노 가죽을 사용한 버건디 컬러 토트백 36X28cm 2백만원대. 문의 02-3442-1830



CASUAL SOFT BA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토즈 블루 토트백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스트랩이 있어 크로스로드 활용할 수 있는 소가죽 토트백 37X36cm 2백34만원. 문의 02-3438-6008 에르메스 더블 에상스 백 부드러운 송이자기족 소재를 사용해 소자품을 넣었을 때 축 처지는 라인이 매력적인 토트백 45X43cm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YSL 시크 백 세련된 블랙 컬러에 사이즈가 커서 실용적인 토트백 47.5X37.5cm 3백40만원대. 문의 02-549-5741



1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웅장한 성을 배경으로 첫선을 보인 BMW 뉴 7 시리즈 750Li. BMW 뉴 7 시리즈의 실루엣은 긴 휠베이스, 짧은 프런트 오버행, 곡선 형태의 긴 보닛, 쿠페 모양의 루프 라인 등 BMW만의 상징적인 비율로 정의된다. 2 운전석 정면에 설치된 다기능 인스트루먼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필요에 맞춰 작동된다. 스크린을 통해 상태와 기능 디스플레이 등의 상황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3 뒷좌석 시트는 백레스트 접이식 테이블 또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와 함께 옵션으로 주문할 수 있다. 9.2인치 스크린은 암좌석에 내장한 대신 시트 위에 '떠 있는' 형태로 설치된다. 4 장면에서 바라본 BMW 뉴 7 시리즈는 길고 넓은 보닛, 옵션으로 제공하는 신형 풀 LED 헤드라이트로 외관을 더욱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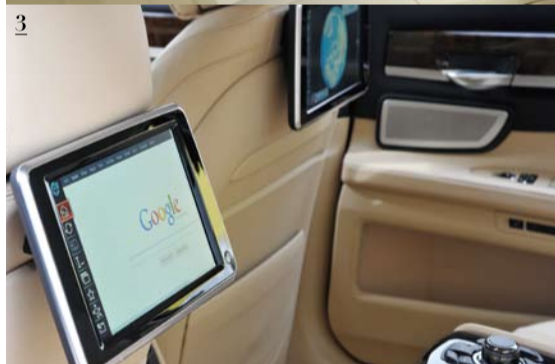


ultimate Prestige

'위엄(prestige)', '우아함(elegance)' 그리고 '고급스러움(exclusivity)'. 이것이 새로운 BMW 7 시리즈의 세 가지 키워드다. 광고 문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 같지만, BMW는 자신들의 자동차를 설명할 단어를 절대 허투루 고르지 않는다. 이것은 저마다 최고라고 자부하는 고급 대형 세단 시장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BMW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고급 차 브랜드. BMW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 가장 높은 영업 이익률(11.6%)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BMW는 만족하거나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디자인과 성능, 추구하는 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새로운 차를 만들어낸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첫선을 보인 뉴 7 시리즈가 좋은 예다. 대형 세단은 뒷자리 승차감과 편의 장비만 제대로 갖추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BMW의 철학은 약간 다르다. 그들은 이 차를 '궁극의 운전 재미를 갖춘 차라고 소개한다. BMW는 "대형 세단이 운전하는 재미까지 갖추어서 안 될 건 뭐 있느냐"라고 되묻는다. 대형 세단이니까 좀 둔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길 원치 않는 것이다. 전장 5m가 넘는 초대형 세단인 7 시리즈가 실제로 운전석에서는 무척 콤팩트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스티어링 휠에 즉각 반응하는 앞바퀴, 노면의 요철을 넘은 후 즉시 자세를 다잡는 서스펜션, 그리고 속도를 높일수록 가라앉는 듯 느껴지는 안정감은 모두 운전 재미를 추구함으로써 얻은 장점들이다. 뉴 7 시리즈는 그와 동시에 연비와 환경 성능까지 추구했다는 점이 놀랍다. V형 8기통 엔진을 장착한 750i는 4백50마력의 고성능을 자랑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형 세단과 비슷한 수준인 199g/km를 기록하며 리터당 11.6km를 달리는 놀라운 연비(이하 EU 기준)를 보인다. 비단결 처럼 고운 회전 감각 덕분에 '살키 식스리'는 별명을 얻은 6기통 엔진을 장착한 740i는 리터당 12.7km를 달리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전 모델 대비 21% 줄어든 184g/km를 기록한다. 속성을 거듭하고 있는 디젤 모델은 한 수 더 떠서 이제 환경보호의 상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2백58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는 3리터 6기통 디젤엔진을 장착한 730d는 낮은 회전수에서 휘발유 모델을 능가하는 힘을 뽐내며 운전이 무척 쉬우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소형 세단 수준인 148g/km에 불과하다. 대형 차는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깰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성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많은 메이커들이 닮고 싶어 하는 7 시리즈의 겉모습은 그 모든 장점

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이를 한눈에 빈하게 만드는 필살기다. 99%의 자동차가 노란 할로겐 라이트를 달고 다니던 시절에 BMW는 하얀색 제논 헤드라이트와 2개의 원으로 이뤄진 코로나 링으로 개성을 뽐냈다. 이제 헤드라이트는 전력 소모가 낮고 시인성이 훌륭한 LED로 바뀌었다. 아드리안 반 후이동크가 다듬은 디자인은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져, 어디에서 봐도 BMW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거대한 키드니 그릴은 멀리에서도 독일 바이에른 출신임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는데, 엠블럼을 보지 않고도 구분할 수 있는 차별화한 디자인은 지금까지 파르테네 신전을 본뜬 라디에이터 그릴을 장착한 롤스로이스 정도가 유일했다. 2002년 크리스 뱅글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보수적인 대형 세단 시장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온 BMW는 이후 전통과 혁신을 잘 조화시킨 외관 디자인, 클래식한 가죽, 원목 마감과 IT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집목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대형 세단의 유행을 선도해왔다. 부드럽게 열리는 문을 여닫을 때는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슬쩍 잡아당기면 도어는 스윙~ 하고 차체로 빨려 들어가듯 자동으로 닫힌다. 그러면 귀마개라도 한 것처럼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양손과 스티어링 휠이, 오른발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하나가 된 듯 직감적인 조작이 시작된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는 승차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노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적당한 정도로 전달한다. 스칸디나비아 가구를 연상케 하는 미니멀한 실내에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세련되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전해준다. 오디오 시스템은 이제 뱅앤올룹슨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흔히 단점을 적나라하게 나열하는 시승기를 '공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차는 사실 이렇다 할 단점이 없다. 이제까지 대형 세단의 속명처럼 여겨져온 낮은 연비를 극복하고 친환경성까지 손에 넣은 차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 동양과 서양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선보인 BMW 뉴 7 시리즈는 오랜 가치와 새로운 도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다. 글 신동현(레옹) 부편집장



화이트 티셔츠 9만5천원
재임스필스 by 블라카, 니트
베스트 86만원, 캐시미어 재킷
스타일 카디건 1백94만원
모두 질센다, 핑커치프 가격
미정 구찌, 카키 컬러 면 팬츠
39만원 **밴드오브 아웃사이더**
by 블라카, 스틸 소재의
남성용 주얼리 컬렉션인 젤라지
네크리스 40만원대, 젤라지
브레이슬릿 50만원대
모두 타파니.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그레이 베스트 1백만원,
그레이 핑커치프 8만원,
스트라이프 패턴 슬랙스
89만원 모두 **프라다**, 그레이
발모랄 슈즈 1백28만원
파치오티, 시마스터 다이버
300 제임스 본드 50주년
기념 워치 5백만원대 **오메가**.

Hey, Mr. Right

청량한 중년의 아이콘,
배우 이성재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꾸미지 않은 듯 멋스러운
2012 F/W 룩을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kim young joon



화이트 라운드 티셔츠 가격
미정, 데님 셔츠 1백만원대,
캐시미어 혼방 소재 재킷
3백만원대, 실크 스카프
50만원대, 데님 팬츠 가격
미정 모두 구찌, 브라운
플레인 토 슈즈 가격 미정
크로켓앤존스.



블랙 티플렉 1백만원대
다울 울트, 네이비 셔츠
51만원, 향방 울트, 골드
라이딩 보디 워머 가격 미정
버버리 프로섬, 데님 팬츠
33만원, 캐논본 by 블리커,
브라운 슈즈 83만8천원
크로켓앤존스, 아틀라스 등
워치 1천만원대 티파니.



그레이 셔츠 65만원, 블랙
캐시미어 니트 89만원,
후드 디테일 배럴 코트
2백89만원 모두 **폴스미스**,
울스카니 레그 팬츠
가격 미정, 유니크한
디자인의 우산 1백만원대
모두 **버버리 프로섬**.

그레이 캐시미어 니트
1백만원대, 코듀로이
재킷 2백만원대, 화이트
팬츠 가격 미정, 실크
소재 스카프 50만원대
모두 **구찌**, 네이비
벨벳 슈즈 67만8천원
크로켓앤존스.





화이트 셔츠 80만원대,
블랙 타이 20만원대
모두 **디올 울므**, 숄칼라
캐시미어 스웨터
가격 미정, 울스카니
레그 팬츠 1백만원대
모두 **버버리 프로섬**.
블랙 플레인 토 슈즈
1백만원대 **버버리**.

그래프 체크 셔츠 30만원대
디앤엘 by 블러쉬, 미니잠한 재킷
1백만원대 **크리스 반 아시 by 블러쉬**.
울 소재 슬랙스 70만원대 **어태치먼트 by
블러쉬**, 머플러 가격 미정 **에르메네질도
제나**, 페이턴트 윌 린 슈즈
1백만원대 **파치오티**.

블리커 02-547-2233
구찌 1577-1921
티파니 02-547-9488
크로켓앤존스 02-3479-1969
질 샌더 02-547-4485
프라다 02-514-9180
버버리 프로섬·버버리 02-3485-6583
폴 스미스 02-3447-0278
파치오티 02-545-8757
오메가 02-511-5797
에르메네질도 제나 02-2016-5325
블러쉬 02-548-8328
디올 울므 02-518-0270
오메가 02-511-5797
랑방 울므 02-6905-3496



헤어 권영은
메이크업 **오원미**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세트 스타일리스트 **최훈화**
에디터 **배미진**

Elegant Classic

코치넬리를 대표하는 셀레스티(Celeste) 라인은 부드러운 촉감과 견고함을 자랑하는 소가죽을 사용했으며, 헤가 바뀌어도 질리지 않는 클래식한 스퀘어 형태의 디자인이 특징. 중앙에는 브랜드 네임의 C자를 형상화한 금속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어깨에 편안하게 멜 수 있는 롱 숄더 핸들이나 미니 사이즈 토트백, 클러치 백 또는 크로스 백으로 연출 가능한 포트폴리오 형태의 스퀘어 백 등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앙증맞은 미니 사이즈 토트백 27X14cm 53만원, 옷차림과 걸들지 않는 세련된 오렌지 컬러 스퀘어 백 35X8cm 67만원, 오피스 룩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될 차분한 베이지 컬러 숄더백 33.5X16cm 73만원.



italian Perfection

클래식한 디자인과 견고함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가죽, 다채로운 컬러, 독창적인 엠블럼은 현대 여성들이 원하는 핸드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우아함을 고스란히 담은 핸드백 브랜드 '코치넬리(COCCINELLE)'의 2012 F/W 컬렉션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rendy Coccinelle

새로운 디자인이나 컬러를 두려워하지 않는 트렌디한 여성을 위한 다양한 핸드백 컬렉션도 준비되어 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펠트 소재의 쇼퍼 백을 비롯해 스웨이드와 송아지가죽의 대비가 눈에 띄는 토트백, 가방 뒷부분의 양끝 부분을 접거나 열어서 연출할 수 있는 레오파드 프린트의 투웨이 토트백까지 고급스러운 컬러와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469-2599, 롯데백화점 본점(02-772-3143), 롯데백화점 영등포점(02-2630-6728) 에디터 **이예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고급스러운 송치 소재와 소가죽의 믹스로 클래식하면서도 매력을 드러낸 레오파드 토트백 48X8cm 93만원. 코치넬리의 심벌을 펠트 소재에 엠보 처리한 쇼퍼 백 32X16cm 23만원. 최고급 송아지가죽에 악어 프린트를 입힌 편지봉투 디자인의 그린 컬러 클러치 백 27.5X5cm 35만원. 블랙 스웨이드와 소가죽에 파이톤 프린트를 엠보 처리해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토트 겸 숄더백 30X18cm 79만원.



Lace

섬세한 레이스 자수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한 레이스 슈즈.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콕블루(녹색을 띤 진한 파란색) 컬러의 실크 소재와 블랙 레이스가 돋보이는 옥스퍼드 슈즈 1백58만원, 인디언 핑크 컬러에 레이스 자수가 관능미를 더하는 스타레토 힐 1백98만원, 화이트 컬러 실크 소재에 레이스와 자수가 더해 웨딩 시즌에 어울리는 스타레토 힐 2백38만원. 모두 파치오티.



Albert

체사레 파치오티가 영화 <알버트 뉘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알버트 슈즈.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커팅 장식이 독특한 펌프스 1백78만원, 골드 컬러의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T-스트랩 힐 1백68만원, 블랙 스웨이드 소재 레이스업 펌프스 1백78만원. 모두 파치오티.



Rococo glam

자수와 벨벳, 실크 같은 로맨틱한 패브릭들이 가죽을 만나 도시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일상의 룩을 화려하고 과감하게 바꾸어줄 이탈리아 브랜드, 파치오티의 다양한 2012 F/W 슈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4US by PACIOTTI

캐주얼한 아이템에 스타드를 접목해 강렬해 보이는 4US by 파치오티.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슈즈 안쪽에 숨겨진 굽이 있어 키가 커보이는 앙가죽 소재 하이톱 스니커즈 98만원, 굽은 지퍼와 스타드 장식이 독특한 롱부츠 1백18만원, 뒤꿈치 부분에 별 모양의 스타드로 포인트를 준 미들 부츠 98만원. 모두 4US by 파치오티.



Rock-o-co

록적인 요소에 바로크 감성을 접목한 록코 슈즈. (왼쪽부터) 화려한 메탈 장식이 돋보이는 웨스턴 스타일의 미들 부츠 2백38만원, 버클과 화살 모양 장식이 독특한 앵클 부츠 2백48만원. 모두 파치오티. 문의 02-575-8757 진행 민상원 에디터 배미진



지난 시즌 밀라노의 남성복 바람이던 피티 워모를 강타한 신 발은 톰 브라운의 투톤 옥스퍼드 슈즈였다. 블랙과 화이트의 모던한 조화와 편칭 디테일이 매력적인 이 슈즈를 톰 브라운 식의 짙은 그레이 슈트는 물론 스포티한 점퍼나 스트라이프 셔츠 등 캐주얼과 클래식을 넘나들며 모든 룩에 매치한 것. 국내에서 투톤 옥스퍼드 슈즈는 단색 슈즈보다 자주 신는 부담스럽고, 컬러 매칭 또한 어렵고 과하다고 느끼는 남자들이 많다. 하지만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거나 트렌드에 민감한 남성이라면 올가을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한 투톤 옥스퍼드 슈즈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번 시즌 디자인의 특징은 클래식을 따르되 가죽과 캔버스, 가죽과 스웨이드 등 소재 대비로 변화를 주거나 고무 소재의 두꺼운 밑창을 모던하게 응용했다는 점이다. 투톤 컬러가 너무 튀는 이유로 꺼렸다면 톤온톤 배색이나 컬러는 같고 디테일의 가공법만 달리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 캐주얼한 치노 팬츠나 데님에 운동화를 매치하면 캐주얼하게 보이겠지만, 투톤 옥스퍼드 슈즈를 매치하면 몇 잘 입는 스타일리시한 남자로 거듭날 것이다. 에디터 이예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묻어있는 브라운 컬러 슈즈 69만5천원 **랙앤본 by 블리커**, 가죽과 캔버스 소재의 대비가 돋보이는 슈즈 1백28만원 **준야와타.베 X 트리커 by 10 프르소 코모**, 블루와 블랙 컬러로 모던하게 마무리한 옥스퍼드 슈즈 75만원 **폴 스미스**, 화이트 컬러의 두꺼운 굽이 인상적인 캐주얼한 슈즈 58만원 **까르뱅 by 10 프르소 코모**, 양코를 매력하게 특수 가공한 슈즈 1백10만원 **루이 비통**, 클래식한 슈트에도 잘 어울릴 만한 브라운 & 화이트 배색 슈즈 1백76만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미니멀한 조합이 돋보이는 투박한 슈즈는 캐주얼 룩은 물론 슈트에도 멋지게 어울린다. 1백65만원 **툼브라운 by 10 프르소 코모**.

폴 스미스 02-3447-0278 10 프르소 코모 02-3028-1010 블리커 02-6905-3639 루이 비통 02-3432-1854 랄프 로렌 02-545-8200

novelty Oxford

올가을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클래식한 기조를 잃지 않으면서 유틘를 더한 투톤 옥스퍼드 슈즈를 선택하라.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Passion & fashion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은 늘 아름답다. 영 브리티시 스타일 '닥스 레드 라벨'은 이러한 '열정'을 전파하기 위해 '레드 캠페인'을 시작한다. 레드 캠페인의 첫 번째 아이콘 김윤아가 전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 열정적인 스토리에 귀 기울여볼 것.

레드 캠페인의 뮤즈, 김윤아

영국 헤리티지 브랜드 닥스는 지난 시즌 젊은 층을 겨냥한 '닥스 레드 라벨'을 론칭하며 화제를 모았다. 여성들이 꿈꾸는 젊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첫 번째 가치가 '열정'에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를 새로운 라인의 네이밍에 접목하게 된 것. 그리고 이러한 열정의 가치를 아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한 레드 아이콘을 선정해 레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레드 캠페인은 젊은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열정의 아이콘을 보다 많은 닥스 레드 라벨 고객과 공유하는 프로젝트. 이는 닥스가 올해로 로열 워런트(The Royal Warrant)를 받은 지 50주년이 된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레드 캠페인과 함께할 첫 번째 주인공은 가수 김윤아다. 신선하고 파워풀한 음악 세계를 대중에게 인정받은 그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의 삶을 살고 있지만, 긍정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닥스 레드 라벨이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열정은 사랑을 대변하는 동의어이자, 젊고 아름다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음악을 하는 것 역시 자신을 위한다고 털어놓는다. 덧붙여 "거창한 것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해보세요. 그 어떤 일에도, 그리고 모든 순간에도 보다 진심으로 열정을 다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한 김윤아의 레드 라벨 화보에서는 닥스만의 클래식한 우아함과 열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녹아든 매혹적인 가을 룩을 만날 수 있다. 앞으로 레드 캠페인의 활동 중 하나인 'Passion & Fashion' 스타일링 클래스를 통해 모든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열정을 일깨우는 스타일을 전파할 계획이다.

릴렉스드 클래식 닥스 레드 라벨

'닥스 레드 라벨'은 닥스가 국내 진출 30주년을 앞두고 젊은 층을 위해 지난 시즌 선보인 새로운 컬렉션이다. 이는 기존의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는 고객층에서 20~30대를 아우르는 논에이지(non-age)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함이라고.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버버리의 이미지를 리뉴얼하고자 전개한 블랙 라벨이 성공을 거두어 고객층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를 들며 브랜드의 대표 라인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릴렉스드 클래식'을 콘셉트로 하는 닥스 레드 라벨은 소품이나 옷으로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가장 편안하며 아름다울 수 있는 스타일을 모토로 한다. 닥스 오리지널 컬렉션보다 실루엣은 슬림해졌으며, 트렌디한 감성의 프린트나 디자인을 접목해 큰 호응을 얻어냈다. 지난 봄에 선보인 바츠 프린트의 랩 블라우스나 몸의 실루엣을 잘 살려주는 오렌지빛 원피스가 그 예다. 닥스만의 시그니처 체크 프린트를 모던하게 응용한 트렌치코트와 스커트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베이식한 셔츠, 니트 베스트, 키팅 재킷, 버뮤다팬츠 등 다양한 취향의 여성을 만족시킬 만한 풍성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02-515-9895 에디터 **이예진**

2



3



1 스포티한 롱 카기 장화에 화이트 셔츠, 그레이 팬츠를 매치해 세련된 빈티지 클래식 룩을 완성했다. 2 체크무늬 칼라를 더한 네이비 트렌치코트에 화이트 셔츠, 슬림한 팬츠를 매치했다. 3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 안감으로 포인트를 준 카키색 장미, 어깨선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레귤러 소매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마스터드 컬러 원피스와 프린트 스카프로 세련되게 마무리했다.

rock Chic

티프하고 거친 반항아 느낌의 록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록 시크(rock chic) 룩은 와일드하면서 자유분방한 스타일과 모던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으로 매 시즌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 이번 시즌 록에서 영감을 받아 중성적이면서도 여성스러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는 스와로브스키가 그들의 뮤즈인 이효리와 함께 록 시크 브레이슬릿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2012 F/W 키워드, 록 시크(rock chic)

록 페스티벌에 기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청춘의 열기와 자유분방함, 스타일리시한 패션 요소는 더 이상 반항적인 느낌이 아닌 활력 넘치는 문화이자 자유로운 감성을 지닌 트렌드라는 것을. 패션 업계가 이런 록적인 요소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시즌엔 강인해진 여성상이 부각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가 강조되면서 미니멀하고 모던한 록 시크적 요소를 트렌드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던한 블랙 컬러, 가죽 소재, 메탈 장식, 대담함이 엮보이는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활력 넘치고 자유분방한 스트리트 감성을 표현한 것. 주얼리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의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주얼리 디자인에서 벗어나 미니멀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주로 선보이며, 특히 키치한 느낌을 주는 록 시크적 요소를 더한 개성 넘치는 주얼리 스타일이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정형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깨고 자유분방하고 파워풀한 디자인과 콘셉트로 변화를 시도한 스와로브스키도 이런 2012 F/W 트렌드에 주목하고, 일렉트로 록과 시각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록 시크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는 현대적이고 자유로우며 오늘날 여성이 누리는 삶의 다양성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표현한 컬렉션으로,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틀어버리는 록 시크적인 면모를 지닌 이효리와 함께한 화보를 통해 모던하고 패셔너블한 록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번 컬렉션은 록 시크라는 테마 아래, 중성적이면서도 여성스러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것이 특징. 볼드한 크리스탈 장식이 돋보이는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여러 개를 레이어링한 듯 보이는 가죽 브레이슬릿, 블랙 & 화이트 컬러 조합이 귀여운 트윈스트 리본 컬렉션, 록의 상징인 기타, 해골, 하이힐, 선글라스 등의 모티브로 제작

한 스톤 브레이슬릿까지 여성스러우면서도 핑키한 느낌을 살린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한 팝 아이콘인 헬로우 키티(Hello Kitty) 역시 록에서 영감을 받아 기존 특유의 귀여움은 유지한 채 스테드, 가죽, 별모티프를 더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련되고 쿨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키티 고유의 컬러는 최대한 배제하고 골드·블랙·그레이 컬러의 크리스탈로만 표현해 컬렉션에 힘을 더한 점이 돋보인다.

손목에 화려함을 입히다

록 시크 컬렉션의 키 아이템은 브레이슬릿이다. 요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해외 스트리트 블로그 사진 속 패션 피플들의 손목만 보아도 팔찌 레이어링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마치 누가 더 많이 차나 경쟁하듯 팔찌를 겹겹이 착용했는데 다양한 컬러, 소재, 디자인을 믹스해 화이트와 개성을 살린 점이 눈에 띈다. 스와로브스키는 이번 시즌 록 시크 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과 풍부한 컬러에 레이스, 자수, 금, 은, 안티크 금속 등 다채로운 소재를 사용한 브레이슬릿을 제안한다. 여러 개의 팔찌를 레이어링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각기 다른 스타일을 믹스해 유니크하고 위트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또 착용하는 순서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 팔찌를 조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화보 속 이효리의 룩과 같이 시계와 매치해도 훌륭한 조합이 되며 심플한 티셔츠나 셔츠를 입을 때 팔찌로 포인트를 주면 단조로운 스타일도 패셔너블하게 완성된다. 문의 02-3395-9096 에디터 권유진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와 블랙 크리스탈이 조화를 이룬 트라이앵글 세이프의 식스틴 이어링 14만원, 크리스탈과 송아지가죽을 믹스해 럭셔리한 느낌을 살린 인터벌 밴글 33만원, 록적인 무드로 재해석한 헬로우 키티 록 밴글 25만원, 커다란 크리스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세그먼트 밴글 31만원, 크리스탈과 스테드 장식이 핑키한 스타일 밴글 39만원, 크리스탈로 세팅한 헬로우 키티 네크리스 40만5천원, 리본 모티브가 사랑스러운 슈 펜던트 네크리스 14만4천원, 화려하고 볼드한 크리스탈 장식이 포인트인 세그먼트 네크리스 53만원, 너비나 링에서 영감을 받은 크리스탈 브레이슬릿 각 34만원, 오묘한 실버 나이트 컬러와 모던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포이즈너 이어링 21만원, 크리스탈 체인 주위를 블랙 면사로 매듭 지어 유니크함을 살린 스튜디오 브레이슬릿 각 14만4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1 시계와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록 시크 무드를 완성한 이효리. 2 하나를 착용해도 여러 개를 레이어링한 듯한 연출이 가능한 슬레이크 브레이슬릿 각 10만8천원. 3 로커로 변신한 헬로우 키티로 장식한 참 브레이슬릿 47만원.



high modern Classic

갤럭시에서 클래식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새로운 컬렉션 'GX1983'을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완벽한 테일러링, 몸의 선을 잘 살려주는 날렵한 실루엣은 다양한 취향의 남성을 매료시킬 클래식의 뉴 룩임이 분명하다.

CONTEMPORARY CLASSIC STYLE



클래식한 네이비 코트와 패딩 디테일을 결합한 패딩 수트는 울거울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 얇은 체크 프린트 셔츠에 헤링본 패턴 타이, 그레이 컬러의 모직 팬츠를 매치하면 세련된 비즈니스 룩이 탄생한다.

MODERN CASUAL STYLE



세련된 레드 컬러 유틸리티 점퍼로 완성한 모던 캐주얼 스타일. 클래식한 솔칼라 니트 스웨터와 타탄 체크 셔츠, 아이보리 치노 팬츠로 활동적이면서도 스마트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여기에 니트 타이를 매치하면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된다.

이탈리언 클래식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GX1983

1983년 론칭한 후 남자의 타임리스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갤럭시. 30년간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 클래식 'GX1983'을 완성했다. 브랜드가 탄생한 1983년에서 이름을 따온 'GX1983'은 갤럭시의 오리지널리티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컬렉션 라인이다. 최고급 소재와 완벽한 테일러링, 몸의 라인을 타고 흐르는 슬림한 실루엣에 자유롭고 패셔너블한 이탈리언 감성을 더해 클래식 스타일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시즌 처음 공개하는 2012 F/W 컬렉션은 진보적인 스타일의 몽클레어 디자인 디렉터와 고급 소재를 잘 다루는 톰 포드 패브릭 디렉터가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감을 더한다. 제냐, 로로피아나 등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에서만 사용하는 최고급 클래식 소재에 루이 비통, 프라다 라인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해 명품 하우스에 견줄 만한 하이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크리에이터와 함께 창조한 'GX1983'은 국내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미국 등의 유명 멀티숍에서 동시 판매되어 클래식 남성복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클래식과 혁신의 조화, 패딩 수트

이번 2012 F/W 컬렉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아이템은 바로 패딩 수트다. 'GX1983'의 패딩 수트는 갤럭시의 정통 클래식 수트에 모직보다 더 얇고 슬림한 하이테크 소재로 가공한 패딩을 적용하고 현대적인 실루엣을 더해 새롭게 태어났다. 얼핏 보기에는 클래식한 더블 브레스트드 재킷 같지만, 소매에 패딩 디테일을 넣어 감각적으로 완성한 것. 단추를 잠그지 않아도 몸에 착 감기는 실루엣은 슬림한 라인을 연출해줄 뿐만 아니라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낸다. 활용도가 높은 패딩 수트는 도심과 여행지, 비즈니스와 워크엔드 룩까지 동시에 책임지며 트렌디한 스타일을 완성해준다. 체크 셔츠와 헤링본 타이를 매치하면 차분하면서도 격식 있는 모임에 어울리는 오피스 룩이 완성되며, 후드 티셔츠와 매치하면 활동적이면서도 세련된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세련된 캐주얼 룩을 위한 유틸리티 점퍼

겨울철 활동적인 옷차림을 즐기는 남성에게는 따뜻하면서도 스타일을 살려주는 점퍼만큼 많이 입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즌 선보이는 레드 컬러 유틸리티 점퍼의 특징은 넓은 네크라인과 후드 디테일이다. 초겨울에는 얇은 니트나 셔츠를 매치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안에 패딩 재킷을 레이어드해 고급스러운 캐주얼 룩을 완성해볼 것. 특히 굵은 짜임이 돋보이는 솔칼라 디자인의 니트 스웨터는 버튼을 오픈하거나 점퍼를 벗었을 때도 멋스러워 보인다. 또 옷차림에 활력을 더해줄 레드 컬러는 블랙, 네이비, 그레이 등 짙은 컬러의 옷을 많이 입게 되는 겨울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유틸리티 점퍼에 매치한 슬림한 라인의 치노 팬츠에는 운동화보다는 투박한 워커나 데저트 부츠를 매치하는 것이 멋지다. 문의 현대백화점 본점(02-3449-5333), 신세계백화점 본점(02-310-1436), 신세계백화점 센터시티점(051-745-2777) 에디터 **이예진**

Wonder treatment

좋은 소재가 착용감이 뛰어난 옷을 완성하듯, 화장품 역시 성분이 좋다면 그 효과는 확실하다. 25년 전, 캐비아라는 특별한 원료를 뛰어난 효과의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가공한 라프레리의 새로운 얼굴,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 세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클래식이 정답이다, 캐비아 세럼

수많은 화장품 성분들이 유행처럼 등장했다 사라진다. 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입증받은 성분의 제품은 그 명성을 오랫동안 안유지하며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럭셔리 코스메틱의 대명사 라프레리의 캐비아 화장품은 안티에이징 화장품계의 클래식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귀한 음식으로 여겨온 철갑상어의 알, 캐비아를 최초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 이 크림이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것은 말 그대로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캐비아 크림을 사용해본 많은 여성들이 즉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했음은 물론, 비교적 고가임에도 한번 사용해본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매우 높다는 것도 캐비아 컬렉션의 인기를 증명한다. 라프레리는 기존 캐비아 라인에서 안티에이징 효과, 그중에서도 피부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 세럼을 출시했는데, 패키지부터 럭셔리한 캐비아의 이미지를 담았다. 넉넉한 50ml 용량의 세럼 보틀 중앙의 투명창으로 보이는 캐비아 모양의 골드 알갱이는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녹아내리며 액체로 변한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성분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심이다. 보석 같은 골드빛 알갱이가 녹아내리며 생성된 우윳빛같은 반투명한 텍스처는 단 두 번의 펌프만으로 얼굴은 물론 목 라인과 데콜테 라인까지 충분히 바를 수 있다.

오랜 노하우로 가공한 특별한 캐비아

특별한 성분은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도 중요하다. 오랜 시간 동안 캐비아를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해온 라프레리는 캐비아라는 성분에 대해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캐비아를 불법 채취하지 않고 라프레리 전용 양식장에서 캐비아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최상의 상태에서 얻은 캐비아 성분은 라프레리 고유의 기술로 가공해 피부 재생을 돕는다. 텍스처는 모든 피부 타입에 잘 맞도록 충분히 촉촉하고, 거부감 없이 피부에 스며든다. 피부에 가볍게 코팅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장점이다. 바르자마자 거울을 보면 마치 신선한 사과나 자두와 같은 광택이 아름다운 과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강한 윤기가 느껴진다. 세안한 후 물기가 채 마르기 전이라면 토너를 바르지 않고 바로 발라도 좋을 만큼 촉촉한 텍스처가 특징이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다면 메이크업을 모두 마친 후 손끝에 소량을 펴핑해 가장 건조한 양 볼에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도 좋다. 바르고 나면 즉각적으로 얼굴 전체가 살짝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 피부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플루이드 에멀전 포뮬라 기술을 적용했기에 촉촉하면서도 뒷마무리는 쫄쫄한 느낌이 드는 안티에이징 세럼이 탄생한 것이다. 라프레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캐비아 컬렉션을 확장한다는 것은 오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에 아무 제품이나 선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랜 고민 끝에 선보인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는, 지금까지 라프레리를 사랑했던 마니아부터 진짜 안티에이징의 클래식, 리프팅의 정수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다. 50ml 59만7천원. 문의 080-511-6626 에디터 배미진



Upgrade your skin

피부 컨디션이 들쭉날쭉해지는 환절기가 찾아왔다. 피붓결이 거칠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며 뽀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오지는 않는지. 이는 계절 변화, 스트레스, 과로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 피부의 리듬이 깨져 생기는 트러블 현상이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면 피부의 리듬을 정상화하고 하루 종일 폭 잔 듯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아모레퍼시픽 ABC 세럼이 정답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환절기, 피부 리듬을 잡아라

더위가 한풀 꺾이고 기온이 낮아지는 환절기에는 피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심한 일교차로 각질이 두꺼워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등 피부 컨디션이 들쭉날쭉해지는 것. 이는 계절 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과 함께 신체 리듬의 변화로 피부 밸런스가 깨지고 피부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잔주름, 탄력 저하, 잡티 등 일련의 피부 노화 증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부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피부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선 피부의 고유한 리듬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수분 밸런스가 조화롭고 피부의 리듬과 턴오버 주기가 일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 깨진 피부 균형을 되찾아주고 하루 종일 폭 잔 듯 윤기 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아모레퍼시픽 올 데이 밸런싱 케어 세럼(All day Balancing Care serum, 이하 ABC 세럼)은 흐트러진 환절기 피부를 잡아줄 필수 기초 세럼이다. ABC 세럼의 핵심은 피부에 존재하는 생체 시계 단백질 Bmal1을 활성화하는 성분인 밸런사이클 콤플렉스™다. 피부 속 생체 시계 역할을 하는 단백질 Bmal1은 24시간 주기로 바뀌는 피부 리듬을 케어하는 중요한 요소. 아모레퍼시픽 연구소는 이를 제거했을 때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세포 수명이 감소하며 피부 장벽이 약화되는 등 치명적인 피부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성분인 밸런사이클 콤플렉스™를 ABC 세럼에 담았다. 아미노산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질을 포함해 보습 효능과 피부 리듬을 정상화하는 효능을 지닌 자작나무 수액을 주원료로 하는데, 이는 연간 나무 한 그루에서 단 7.5L만 채취할 수 있는 고귀한 성분. 이 외에도 감초, 대나무 수액, 녹차, 목련, 인삼 등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10가지 아시안 보태니컬 성분을 담아 하루 종일 폭 잔 듯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세럼, ABC 세럼

자작나무 수액, 머스크 멜로우 추출물과 10가지 아시안 보태니컬 성분이 피부 리듬을 최적화해 피부에 건강한 윤기와 빛을 더하는 ABC 세럼은 '시에나 밀러 세럼', '피부 리듬 세럼', '뿔수 세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출시 5개월 만에 아모레퍼시픽 세럼류 중 판매율 1위를 기록해 브랜드의 대표 세럼으로 자리 잡았다. 한번 사용한 고객의 재구매율이 높아지면서 대용량 사이즈에 대한 요청이 증가해 올라가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한층 더 커진 70ml 사이즈를 선보인다. ABC 세럼은 토너 후 기초 케어 첫 단계에 바르는 부스팅 세럼으로, 수분감 넘치는 촉촉하고 가벼운 텍스처와 빠르게 흡수되는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인간의 세포 구조와 흡사한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장점. 거기에 피부를 청결하게 정돈하고 불필요한 피지를 제거해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의 흡수율을 높이는 부스팅 효과를 더했다. 기초 세럼을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무엇이 크게 달라지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BC 세럼을 사용하고 난 후부터는 피붓결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탁월한 각질 케어 효과와 뛰어난 수분 공급력으로 4주 동안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 톤과 피붓결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40ml 14만원, 70ml 20만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fabulous Face

다른 옷 절반 이하의 무게만으로도 몸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완성하는 것. 이런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패션 철학은 뷰티 아이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꿈을 꾸듯 가벼운 텍스처의 파운데이션 마에스트로를 소개한다.



오래 지속되는 가볍고 투명한 피부 연출

초기들이 되면, 백화점은 여름내 시달린 피부를 감쪽같이 커버해줄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찾는 여성들로 붐비기 마련이다.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리는 피부를 연출한다고 완벽한 '생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여자들도 알고 있다. 촉촉하면서도 자신의 피부에 딱 어울리고, 적당한 광택이 나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밀리지 않는 지속성이 보장되어야만 가을 피부를 위한 완벽한 파운데이션이라 할 수 있다. 결점 없는 깨끗한 피부를 갈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는 새로운 파운데이션 마에스트로 퓨전 메이크업 SPF 15를 선보인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2012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슈퍼 오감파 패브릭을 콘셉트로 만든 파운데이션으로, 슈퍼 오감파는 9000m의 실 무게가 4g에 불과할 정도로 가볍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사진 속 제품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천이 슈퍼 오감파 패브릭인데 깃털보다 더 가벼워 허공으로 던지면 마치 풍선처럼 몇 초가 흐르고 난 후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가벼운 것에 대한 기준이 유독 엄격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새롭게 선보이는 파운데이션 마에스트로는 이 슈퍼 오감파 패브릭의 특징을 꼭 닮았다. 일부러 파운데이션을 뭉개 하기 위해 광택을 내는 다른 베이스를 섞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가볍고 완벽하게 피부에 밀착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에센스나 세럼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스포이드 타입으로 원하는 양만큼 정확하게 조절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잘 밀리고 두껍게 발리는 것 같아 까리던 여성들이나, 오로지 투명 메이크업만을 고수하는 까다로운 여성들이 사용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파운데이션으로 테스트들의 만족도도 높다.

가벼움을 극대화하는 다섯 가지 오일

조르지오 아르마니 코스메틱 연구소에서는 부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대신, 자연스럽게 편안한 느낌의 피부 표현을 위해 독특한 오일 혼합물을 완성했다. 휘발성, 반 휘발성, 비휘발성으로 이루어진 다섯 가지 오일이 각기 다른 속도로 증발되어 독특한 사용감을 선사하는 것. 처음 텍스처가 피부에 닿으면 휘발성 오일이 산뜻한 느낌을 주고, 반 휘발성 오일이 가볍고 부드럽게 피그먼트 입자를 퍼뜨려 균일한 컬러감을 만드는 필름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비휘발성 오일이 피부 표면에 머무르며 하루 종일 보송보송하고 광채가 감도는 매트한 피부를 연출하는 삼중 작용을 하는 것. 피부를 매트하게 하는 파우더 입자를 넣지 않아 컬러가 걸리지 않으며 한 듯 안 한 듯 세련된 피부 표현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국내에는 일곱 가지 컬러로 출시했다. 30ml 9만4천원대. 문의 080-022-3332 진행 **민상원** 에디터 **권유진**

"얼굴에 발랐을 때 첫 느낌이 촉촉하고 상쾌했어요. 아쿠아 베이스와 달리 오일 베이스로 만들어 롤링 핏수가 늘어나도 건조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끝까지 유지하더라고요. 마무리한 후에는 화장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결이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워 만족스러웠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대균(for 정샘물 인스피레이션)**
"고농축 에센스를 바르는 것처럼 끈적임이 없고 촉촉해요. 피부에 퍼 바르면 실크를 두른 것처럼 매끄럽고 윤이 납니다. 미세한 부분의 모공까지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커버력도 장점이예요. 무엇보다 평소 오후가 되면 화장이 지저분해 보이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 제품은 피부가 보송보송해져서 인상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함께하는 샘플링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전국 모든 조르지오 아르마니 코스메틱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중 선착순에 한해 마에스트로 퓨전 메이크업(3ml) 샘플을 증정합니다.

❖ 기간 2012년 9월 10일~9월 12일 ❖ **증정장소**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WEST(02-514-5326), 롯데백화점 본점(02-726-4025), 롯데백화점 잠실점(02-2143-191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플래그십 부티크(02-3479-6061),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051-745-1230)

※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1인 1회 한정 수량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지는 증정 샘플 이미지가 아닌 참고 이미지입니다.



Eternal feminine

흔히 실용성은 우아함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거나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샤넬의 의상은 실용적인 동시에 우아하다. 가브리엘 샤넬은 20세기 여성상에 걸맞은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남성복의 디테일을 사용했음에도 지극히 여성적인 의상을 만들어낸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녀의 삶을 담은 향수 '코코 누와르'가 58년 만에 탄생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샤넬, 베니스 여행을 떠나다

가브리엘 샤넬이 평범한 삶을 지향했다면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인생에는 여러 번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용감한 도전을 감행했다. 수녀원에서 사춘기를 보낸 샤넬은 그곳을 나온 후 물랭이라는 작은 도시의 무직홀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코코라는 애칭은 이 시절에 생긴 것으로 본인이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평생의 연인이 될 보이 카펠을 만난 것도 이때다. 가브리엘 샤넬은 1920년 8월, 보이 카펠이 죽은 후 그를 추억하기 위해 베니스로 여행을 떠났다.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베니스에서 그녀는 풍부한 색채 감각에 눈을 떴고, 특히 토르첼로 성당과 산 마르코 대성당의 비잔틴 모자이크 양식 유리창에서 빛을 내뿜는 골드 컬러에 매료됐다. 베니스의 밤을 통해 달과 별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기도 했다. 또 가브리엘 샤넬은 별자리에 대한 미신을 굳게 믿었는데, 베니스의 수호물이 본인의 별자리와 같은 사자라는 점에 주목해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사자 조형물들로 주변을 채웠고, 이후 많은 작품 속에서 개인적 인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가브리엘 샤넬은 고통의 순간에 찾은 베니스에서 비잔틴 예술의 정제된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배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샤넬의 완전한 패션과 아름다운 뷰티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신비로운 관능미, 코코 누와르

"향기는 시(詩)의 다른 이름이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말하니까." 코코 누와르를 탄생시킨 샤넬의 제3대 조향사 자크 폴주의 향수 철학이다. 코코, 에고이스트, 알퀴르, 코코 마드모아젤, 샹스 등 샤넬 향수의 히트작들이 그의 코끝에서 완성됐다. 코코 누와르는 가브리엘 샤넬의 베니스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됐는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향기보다는 강렬한 향을 원하는 여성에게 어울린다. 은근한 여성미를 드러내는 코코 누와르의 향기는 지금까지 샤넬에서 선보인 향기보다 다양한 소재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향기다. 피부에 닿는 즉시 칼라브리아산 베르가모트와 그레이프 프루츠가 어우러져 상쾌하고 생기 있게 살아난다. 여기에 제스민과 로즈, 수선화의 관능적인 숨결이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통카 빈, 인도네시아 산 피츨리, 뉴칼레도니아산 샌달우드, 부르봉 바닐라, 화이트 머스크 유향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향기를 선사한다. 보틀 디자인도 강렬한 느낌의 블랙 글라스로 기존의 그 어떤 향수보다 멋진 자태를 선보인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여성스러운 향기를 넘어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신만의 관능적인 향기를 품고 싶은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50ml 14만7천원, 100ml 21만1천원. 문의 080-332-2700 진행 민상원 에디터 배미진





Autumn colors

체리를 한 입 베어 문 듯 매혹적인 와인빛 입술, 달콤 짭사름한 초콜릿 컬러를 입힌 눈가, 은은한 골드빛을 더한 페이스까지. 올라올엔 더욱 풍부하고 깊어진 컬러가 당신의 얼굴을 파스하게 물들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슈에무라 초콜릿 돈나 아이 팔레트 각 양각색의 초콜릿이 가득 담긴 초콜릿 박스를 연상케 하는 아이 팔레트, 고급스러운 초콜릿 박스에서 영감을 받은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민트 바닐라, 오렌지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모카 등 제품명만 들어도 달콤하고 풍부한 컬러로 구성했다. 리필이 가능한 케이스에 좋아하는 컬러를 담아 자신만의 팔레트를 구성할 수 있다. 7만9천 원. 문의 080-022-3332

샤넬 퀴미에르 다티피스 은은하고 윤기 있게 빛나는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가을 한정판으로 출시하는 페이스 파우더. 섬세한 골드 빛 광채가 햇빛에 살짝 그을린 듯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한다. 가벼운 톤과 강렬한 톤의 두 가지 베이지 컬러로 구성해 원하는 느낌에 따라 블렌딩해 사용하면 된다. 18g 8만 원. 문의 080-332-2700

나스 하이 소시이어티 트리오 아이샤도 사랑스러운 라벤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딥 그린과 저수정빛 피플 컬러가 조화를 이룬 아이샤도 팔레트. 아름다운 자연을 연상케 하는 컬러로 구성된 우아한 아이

메이크업에서부터 모던한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으며, 아이샤도, 아이브로, 아이리니어, 하이라이터로도 사용 가능하다. 5.1g 6만4천 원. 문의 02-6905-3747

조르지오 아르마니 네오-클래식 페이스 & 아이 팔레트 일루미네이터 겸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어 베이지 톤의 페이스 파우더와 소프트 베이지, 토프, 젯 블랙 아이샤도를 하나로 구성된 투인원 콘셉트의 팔레트. 마이크로-필™ 테크놀로지로 제작한 미세한 블러시 입자가 기털처럼 가벼운 페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수채 화처럼 아연하고 세련된 컬러를 선사한다.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된 아이샤도도 매트한 타입의 두 가지 색도와 은은한 핏을 함유한 색도로 구성해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 블러시 8g, 아이샤도 3g 11만 원. 문의 080-022-3332

컬러 에끌레 4 컬러의 신뜻한 오렌지 컬러와 깊이감이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가 조화를 이룬 롱 래스팅 아이샤도 팔레트. 자연스럽고 웨어러블한 컬러로 어떤 피부 톤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으며, 브라운 계열의 우아하고 따뜻한 컬러가 생기 있으면서 깊고 그윽한 눈

매를 완성한다. 7.2g 7만2천 원. 문의 02-3438-9627

베네티트 크리즈리스 크림 색도 패러하이트 페브 은은하고 매혹적인 심페인 골드 컬러의 아이샤도. 부드러운 크림 타입 색도로 발림성과 밀착력이 뛰어나며 덧바르는 정도에 따라 내추럴하고 은은하게, 또는 강렬하고 섹시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표현할 수 있다. 4.5g 3만 원. 문의 080-001-2363

로라 메르시에 캐비어 스티 아이 컬러 가을에 어울리는 여덟 가지의 고급스러운 컬러감과 뛰어난 발색력, 고정력을 갖춘 스티 타입 아이샤도. 다른 컬러와도 쉽게 블렌딩되는 것은 물론 눈가 주름에 까거나 뭉치지 않고 고르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갈끔한 아이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스티 타입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레이션 효과를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넓게 펴 바르고, 스모키 느낌을 더하려면 브러시를 사용해 속눈썹 라인에 포인트를 주도록. 1.64g 3만8천 원. 문의 02-514-5167

에스티 로더 더블 웨어 스테이-인-플레이스 듀얼 엔디드 펜슬 듀오 펜슬 양쪽에 각기 다른 컬러의 아이리니어를 배치한 펜슬 듀오.

또렷하고 깊은 눈매를 연출해줄 다크 계열의 오닉스 & 커피, 오닉스 & 네이비, 오닉스 & 가넷,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가볍고 크리미한 질감의 롱 래스팅 포뮬러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이리니어를 그릴 수 있고, 하루 종일 또렷이 정돈된 생생한 컬러가 지속된다. 1g 3만6천 원. 문의 02-3440-2772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벨벳 립스틱 블랙 카시스 블랙 컬러가 감도는 질은 와인 컬러 립스틱. 대담하고 드라마틱한 메이크업을 할 때 제격이다. 질감이 부드러운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으며 매트한 벨벳 느낌으로 미루리되어 고혹적이고 관능적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3.8g 3만8천 원. 문의 02-3440-2772

디올 골드 정글 002 골드 브라운 레오파드 모티프가 돋보이는 메이크업 팔레트. 골드, 브라운 계열의 아이샤도로 내추럴 메이크업은 물론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도 연출할 수 있다. 이와 어울리는 진한 누드 컬러의 립스틱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내추럴하면서도 클래식스러운 미모가 가능하다. 4.7g 8만5천 원. 문의 02-3438-9637 에디터 권유진

Precious moment

패션 브랜드에서 향수를 만들고, 주얼리 브랜드에서 가족 제품을 선보이는 등 모든 분야의 크로스오버와 확장이 가능한 이 시대에, 40여 년간 오로지 향수 하나만을 고집하는 특별한 브랜드가 있다. 창조적인 열정으로 오로지 향기, 그 하나에 집중하는 특별한 하이엔드 향수 브랜드, 디пти크 이야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향기 하나만을 고집하는 장인 정신

하이엔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오토매틱 위치를 선택할 때 모든 컬렉터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시계만을 만드는 전통이 있는 브랜드인가. 그 역사와 전통,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제품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했는가를 따지는 장인 정신은 브랜드의 가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그러한 장인 정신을 지켜온 디пти크(Diptyque)는 향수를 출시하는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오로지 향기, 그 하나만으로 상류사회를 사로잡은 비밀의 향수 브랜드다. 처음 한국에 출시했을 때 일명 '여배우 향수'로 통용되던 디пти크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로지 향수 하나만을 생각한다. 거대 명품 기업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광고나 마케팅을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품격 있는 마니아들의 사랑으로 향기에 대한 집념을 지속시키고 있다. 디пти크 최초의 매장인 파리 셀러브리티의 아지트가 된 아름다운 생제르맹 부티크처럼 향수와 향초, 브랜드를 상징하는 일러스트만이 가득할 뿐이다. 자연과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디пти크의 향기는 추억 속의 특별한 과일 맛, 나무 진액의 향, 이국적인 향신료, 달콤하고 섬세한 꽃향기, 깊은 밤의 향과 나무의 신비로움을 표현한다. 원료 선별부터 새로운 향기를 선보이는 일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데, 이러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후각에 특별한 풍경화를 선사하는 것이다.

삶에 녹아드는 특별한 향기, 디пти크

디пти크는 패션과 같이 시너지를 위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새로운 향의 기본이 되는 향수, 오드 투알렛을 출시하고 그 이후에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향초와 센티드 오발을 선보인다. 단순히 몸에 향기를 지니고 있는 것을 넘어 생활 공간을 채워 원하는 향기와 함께하는 일상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삶을 디자인하는 브랜드인 것이다. 단지 놓아두기만 하면 향기가 퍼지는 센티드 오발은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기에 그 어느 곳 이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센티드 오발은 디пти크에서 가장 사랑받는 다섯 가지 향을 선보이는데 25~30%에 달하는 향기 농축 성분을 사용해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디пти크의 향기가 그 어떤 곳에서든 잘 어우러지며 특별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장인 정신을 지켜온 모든 브랜드가 그러하듯, 최고의 품질을 위해 엄선한 성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디пти크의 향초는 최소 12단계를 거쳐 핸드메이드로 제조되며 입으로 불어 손으로 제작한 글라스에 담긴다. 독성이 없는 인종반은 맑은 밀랍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단순한 향수를 넘어서,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나만의 향기,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픈 향기를 원한다면 디пти크가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514-5167 에디터 배미진



디пти크를 대표하는 컬렉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미와 블랙 커런트 잎사귀 향기를 담은 베이 향초 300g 14만5천원, 푸른 강변과 정원을 떠오르게 하는 플로럴 그린 향의 롬브르 단 로 오드 퍼퓸 75ml 19만8천원, 디пти크 고유의 디자인으로 완성한 베이 센티드 오발, 걸어두기만 하면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메운다. 7만8천원.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전 세계 상류사회가 선택한 비밀의 향수 '디пти크'가 함께하는 샘플 증정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가까운 '디пти크'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후각에 특별한 풍경화를 선사해줄 디пти크의 고품격 향수 스프레이(2ml) 샘플을 증정합니다.

❖ 기간 2012년 9월 7일~9월 9일 ❖ 증정 장소 갤러리아백화점 EAST(02-6905-3511), 롯데백화점 본점(02-772-3166), 신세계백화점 본점(02-310-154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02-3479-6049), 현대백화점 본점(02-3449-5311)

* 1인 1회 한정 수량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the Beautiful Days

꽃과 음식이 함께하는 가을은 그 어떤 계절보다 풍요롭다.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요리하는 셰프와 평범한 일상을 화사하게 바꾸는
스타일리스트가 말하는 르크루제 이야기.

FAMILY BRUNCH

"주말 가족 여행을 위해서 레드 컬러와 블루 컬러 르크루제 냄비에 영양부추를 곁들인 갈비구이와 도미 해물찜, 꼬치구이를 요리해보았습니다. 무척 추물로 만든 르크루제 냄비를 사용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멋진 디자인 덕분에 그릇에 따로 담아낼 필요가 없이 간편하네요." _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바 키친 셰프 노재승



RAMEKIN FOR SPECIAL RICE BOWL

"컬러풀한 라메킨 접기에 담은 다양한 종류의 밥은 입맛을 잃은 사람에게도 매력적이지요. 무쇠 냄비에 팔방, 단호박밥, 가을 영양밥을 조금씩만 지어 작은 라메킨 접기에 담아보세요. 식탁이 더욱 풍성해진 느낌이 듭니다." _ 푸드스타일리스트 최주영



PASTEL ORIENTAL FOR PARENTS

"부모님을 위한 특별식으로 해물 스팀 자부위 연어 & 두부 데리야기, 볶은 미역과 적복점을 준비했어요. 삼차 두껍의 달란 르크루제 타진은 재료에서 나온 증기를 효율적으로 순환시켜 진한 국물맛을 낼 수 있습니다." _ 백제갈비 매뉴게발 실장 신현중



FLOWER CENTERPIECE

"키스 컬러의 무쇠 냄비와 미니 히트 라메킨 접기에 꽃을 꽃아 센터피스로 연출했어요. 조약돌을 이용해 줄기 끝을 고정하면서 한쪽으로만 낮게 꽃으면 여백을 즐길 수 있는 근사한 센터피스가 되지요." _ 푸드스타일리스트 최주영



Wrinkle free

깊은 팔자주름의 흔적을 지우고 피부 건조, 탄력, 잡티, 칙칙함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시세이도 리바이탈 바이탈-퍼펙션 사이언스 크림 AAA'는 동안에 한 발짝 다가서게 하는 비밀 병기다.

시간이 멈춘 피부, 시세이도 팔자주름 크림

피부만큼은 자신 있던 사람일지라도 30대에 접어들면 페이스 라인이 무너지고 팔자주름이 도드라지게 마련이다. 5년 전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입가 주름과 피부 처짐이 심해진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젊고 어린 얼굴이 대체적으로 볼과 입가가 아끼같이 통통하고 페이스 라인이 역삼각형으로 매끄럽다면, 나이가 들면 피부 처짐 현상과 함께 옷치 않아도 팔자주름이 깊게 나타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동안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온다. 안타에이징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시세이도는 안타에이징을 피부 탄력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팔자주름이라는 고객의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해 이에 집중 작용하는 '리바이탈 바이탈-퍼펙션 사이언스 크림 AAA(40ml 26만원)'를 출시한다. 이는 피부에 탄력과 광채를 선사하는 동시에 볼과 턱선을 리프팅해 더욱 젊어 보이는 피부로 가꿔주는 멀티 기능성 크림. 시세이도는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피하지방과 팔자주름의 상관관계를 규명, 이를 바탕으로 신성분인 렌차 추출물 AAA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피하지방세포가 크고 무거우수록 피부 처짐과 팔자주름의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큰 지방세포를 작은 지방세포가 많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렌차 추출물 AAA의 역할. 시세이도 연구원 토모노부 이즈레는 "렌차 추출물 AAA는 팔자주름의 원인이 되는 큰 지방세포의 소멸을 촉진하고, 피부의 양성인자인 작은 지방세포의 생성을 활성화하는 핵심 성분으로, 피부에 탄력을 더하고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시호 추출물, 피부 산화를 예방하는 장미, 사과

잎 추출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4MSK, 피부의 투명도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올리브 잎 추출물로 구성된 시세이도만의 독자적인 성분인 VP8을 더해 피부 건조·탄력·주름 개선은 물론 잡티와 피부 톤까지 한 번에 케어한다.

이슬처럼 녹아드는 텍스처

리바이탈 크림의 성분과 기술력도 매우 뛰어나지만 바를수록 이슬처럼 부드럽게 녹아드는 텍스처 역시 놀랍다. 텍스처에 있어 독보적이라 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시세이도는 브랜드만의 특별한 유휴 기술로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유니크한 텍스처를 완성했다. 리치한 크림 제형으로 보이지만 피부에 묻히면 순간 이슬같이 촉촉한 오일로 녹아들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만 남아 무겁거나 리치한 것을 싫어하는 이들에게도 제격이다. 시세이도 마케팅팀 유키 카와이는 "농후하면서도 발랐을 때 산뜻하고 촉촉한 느낌의 텍스처를 유지하기 위해 1백50차례나 시제품을 만들어가며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크림은 피부의 처짐과 팔자주름에 주력한 제품이기에 바르는 순간 탄력을 실감할 수 있도록 고급스러운 백합·장미·제스민 향을 조합해 단순한 향기 개념을 넘어 몸과 마음을 릴랙싱시키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느낄 수 있다.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1 팔자주름을 집중 관리하는 시세이도 리바이탈 바이탈-퍼펙션 사이언스 크림 AAA. 2 시세이도 리바이탈을 대표하는 얼굴, 아베루 미셀 리. 3 시세이도 출시하는 리바이탈 크림에는 백합·장미·제스민 향을 담아 몰래싱 효과를 느낄 수 있다. 4 리바이탈 크림의 핵심 성분과 기술을 설명하는 시세이도 연구원 토모노부 이즈레.



Art of Maison in Shanghai

중국 최초의 루이 비통 플래그십 매장이 상하이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적인 거장 건축가 피터 마리노가 설계한 상하이 매종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패션쇼, 전시회, 유명 아티스트의 파리-상하이 여행 일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줄지어 펼쳐지니, 도시의 여름이 더욱 풍성해졌다.

'여행의 예술을 지향하는 루이 비통의 '실크로드 탐험'이 1세가 넘는 세월을 거쳐 국제도시 상하이로 귀착했다. 지난 7월 19일 루이 비통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중국 최초로 상하이 최고의 번화기인 난징루 근처에 자리한 매종 플라자 66에 그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루이 비통은 1907년 파리-베이징 탐험대를 앞세워 LV 로고가 새겨진 트렁크가 고비 사막을 건너게 했고 1992년에는 베이징의 폐난술라 호텔에 중국 최초의 매장을 세웠지만, 국제적인 도시의 위용에 걸맞은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루이 비통의 16번째 매종(maison)이다. 4층으로 이뤄진 상하이 매종은 세계 우수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매종의 미학을 다져온 건축계의 거물 피터 마리노가 설계한 작품. 1층 매장 가운데에는 5m 높이의 조각상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중국의 스타 작가 치우쯔지에의 조각 시리즈 '월경삼목' 중 하나다. 2층과 3층에는 나무를 심은 테라스를 만들어 방문객들이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4층에는 VIP 고객들을 위해 최고의 기적으로 제작한 맞춤형 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오프 마로카네리 컬렉션'을 마련했다.

동서양의 문화적 감성이 교차하는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채로운 행사의 향연이 펼쳐졌다. 행사 당일엔 루이 비통의 이브 카셀 화가와 아트 디렉터 마크 제이콥스가 주관한 각테일 파티에 건축을 맡은 마리노를 비롯해 알렉 드롱, 레티시아 키스타, 공리 등 세계적인 배우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고, 이와 별도로 상하이 번드(Bund) 지역에서는 패션쇼가 성대하게 열렸다. 특히 이 패션쇼에는 우아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LV 군단의 모델들이 고풍적인 드레스를 입은 채 중기를 내뿜는 파란색 기차에서 내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는 지난 3월 기차에 2012~2013 F/W 여성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가득 실은 채 루브르 궁전에 정차하는 이색적인 쇼로 화제를 불러일으



1 번화기인 난징루 근처 플라자 66에 세워진 루이 비통의 플래그십 매장 내부. 2 패션쇼에 등장한 루이 비통 기차. 모델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퍼포먼스가 연출됐다. 3 10년 오프닝 행사에 초대된 각국의 귀빈들은 '짐 꾸러기(kart of packing)'의 달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아역 강의를 접할 수 있었다.

킨 루이 비통 익스프레스를 재현한 것으로, 이 기차가 파리에서 멈추지 않고 상하이를 종착역 삼아 달려왔다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파리에서 출발해 시베리아를 거쳐 상하이에 도착하는 여정을 소화한 명성 높은 아티스트 토드 셀비의 기차여행을 그의 감각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가미된 동영상 작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www.louisvuittonexpress.com). 이 밖에 상하이 행사가 초대된 VIP들은 '짐 꾸러기'의 달인들이 진행하는 이색 강의에 초대받는 한편, 플라자 66 건물 내에서는 '루이 비통의 여행'이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8월 중순까지 개최되는 등 '여행의 미학을 강조하는 루이 비통의 자산이 '명불허전'이라는 점을 곳곳에서 드러내려는 노력이 자못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주를 이었다. 이름 되던 '매종 예술'의 진화라 할 만하다. 에디터 고성연

서적 업계의 명품 브랜드, 한국 상륙

'책 디자인에도 명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서적 업계의 명품 브랜드 애슬린(Assouline)이 한국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도산공원 근처에 자리 잡은 애슬린의 아시아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 '애슬린 라운지'는 럭셔리 서적 세트부터 브랜드 북, 예술 서적, 아트 전시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서적 업계의 '진정한 럭셔리'로 불리는 애슬린(Assouline)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입성했다. 샤넬, 프라다, 디올, 루이 비통, 까르띠에 등 내로라하는 명품 업체의 브랜드 북뿐만 아니라 예술 서적, 라이프스타일 북 등을 미학적 완성도가 돋보이게 제작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서적 브랜드다.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적 감성을 전하는 라이프스타일 일을 함께 제안한다는 맥락에서 '북 스토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명품 브랜드의 매장처럼 '부티크 북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담하다. 애슬린은 지난 8월 초 에르메스, 리 오웬스, 313갤러리 등 호화로운 건축물이 밀집된 서울 강남의 도산공원 부근에 아시아 1호 플래그십 스토어인 '애슬린 라운지'를 열었다. 파리, 뉴욕 등 메트로폴리스에서 문화적 흐름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지닌 애슬린이 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한국을 낙점한 것이다. 애슬린의 창업주 프랑수아 애슬린 회장은 "한국이 명품 시장에서 짧은 시간 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기에 서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애슬린의 강점인 브랜드 북 시장을 겨냥한 행보라고 보고 있다. 애슬린은 유럽 브랜드뿐만 아니라 도나 카탈, 랄프로

렌 등 미국의 우수 업체들과 브랜드의 자취와 핵심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 북을 내고 광고 기획 작업을 해왔다. 국내 브랜드로는 설화수외도 인연이 있다. 또 애슬린 회장은 지난해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로 명성 높은 한영아 씨를 아시아 총괄 사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애슬린 관계자는 "브랜드의 DNA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럭셔리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브랜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담한 정원풍 입구부터 눈길을 끄는 '애슬린 라운지'는 각종 아트 북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북 갤러리(Book Gallery),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 활약하는 유망 작가들의 전시가 펼쳐지는 아트 갤러리(Art Gallery), 세련되고 우아한 프렌치 감성이 묻어나는 샴페인 카페(Champagne Carfé) 등 3개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공연 예술의 정점을 찍었다는 '태양의 서커스' 창립자인 기 탈리베르테가 우주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담은 가이아, 근사한 고아드 여행용 트렁크에 패션·건축·디자인을 아우른 1백여 권의 미니아트 북을 담은 '메우아르' 시리즈 등 눈요깃거리가 풍성하므로, 예술과 책에 남다른 관심이 있다면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에디터 고성연



1 도산공원 인근에 문을 연 애슬린의 플래그십 매장 애슬린 라운지. 마치 상그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정원으로 인연하는 듯한 정문 입구. 2 다양한 예술 서적과 라이프스타일 북, 각종 생활 소품 등을 접할 수 있는 북 갤러리. 3 프랑스 명품 브랜드 고아드의 여행용 가방에 미니아트 북들이 빼곡히 담긴 '메우아르' 시리즈. 4 샴페인의 특유 맛을 활용한 '샴페 북'. 5 마비앙의 'A-Z'를 살펴볼 수 있는 바비 슬랩북.





Grotta Palazzese

우리 앞에 펼쳐진 자연은 절대 우리를 질리게 하는 법이 없다. 그 자연이 더욱 드라마틱한 형세를 갖추고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폴리나노 아 마레. 나폴리로 향하는 여행자들은 이곳을 지나치다 숨이 멎을 듯한 이곳의 절경에 마음을 빼앗겨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정착했다. 아름답고 고요한 작은 마을의 아름다운 호텔과 레스토랑 '그로타 팔라체세'를 만나보자.

이탈리아 남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작은 마을 폴리나노 아 마레 (Polignano a Mare). 이곳에는 깎아지른 석회암 절벽과 하늘빛을 담은 푸른 바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만든 아름다운 동굴들이 장관을 이룬다. 그중 그로타 팔라체세는 이 마을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동굴이다. 멋진 자연 풍경과 최상의 서비스가 만난 이곳은 헝가리의 여왕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명사들이 찾아와 갑탄을 금지 못했으며 매년 프랑스와 영국 관광객들이 조용하고도 프라이빗한 여름을 나기 위해 매년 찾는다고 한다. 1700년대에 아름답게 형성된 이 석회암 동굴들은 이탈리아 귀족들과 마을 주민들이 보존하며 독특한 방식처럼 사용해왔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아름다운 호텔과 여름 레스토랑으로 꾸며져 있다. 바다와 태양 빛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8월로, 관광객들에 의해 북새통을 이루곤 한다. 하지만 꼭 관광철이 아니더라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꼭 한번 이곳을 방문해보길 권한다.

THE SUMMER CAVE

동굴 벽은 바다의 아파마린 컬러를 가득 반사해 영롱한 빛을 머금고 있다. 이곳은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신선한 바닷바람과 풍부한 지중해의 푸른빛을 마음껏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석양이 지고 주위가 어느새 캄캄해지면 테라스에는 하나둘 등불이 환히 밝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시원하고 웅장한 바다의 파도 소리와 향긋한 바다내음에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며 인간의 삶을 더욱 안락하게 해주는 모던한 디자인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장소이다. 여름 동굴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오픈한다.

KITCHEN AND CELLAR

레스토랑의 세프와 호텔 주인장은 바다의 풍미를 이용해 사람들을 유혹



1 폴리나노 아 마레는 석회암 절벽 위에 드라마틱하게 자리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감탄케 한다. 2 그로타 팔라체세의 여름 동굴은 자연 석회암 동굴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테라스이다. 3 동굴을 깎아 지은 호텔인 만큼 호텔 옆의 모양도 가지각색의 동굴 형태를 띤다. 4 그로타 팔라체세의 여름 동굴 테라스에 앉으면 이탈리아 남부의 풍성한 바다 향과 멋진 지중해 빛을 만끽할 수 있다. 5 폴리나노 아 마레의 바위 해변. 6 에메랄드빛 지중해 해안 절벽이 있는 폴리나노 아 마레 마을.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곳이라는 찬사를 들곤 한다. 7, 8 그로타 팔라체세의 맨 꼭대기 층은 해안 절벽을 감성하며 태양을 할 수 있는 멋진 절벽으로 꾸며져 있다. 9 저녁 시간, 테라스에 불이 하나둘 켜지면 여름 동굴은 더욱 환상적인 지대를 드러낸다. 10 여름 동굴에서 바라보는 저녁 풍경. 짙은 인디고의 하늘과 바다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아름다운 풍광에 최고 퀄리티의 서비스 그리고 전통과 분위기를 더하면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유니크한 장소가 된다. 지중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바닷가재와 해산물은 이곳의 자랑거리이다. 또 이탈리아 전통을 잇는 대표적인 와인인 이곳의 바다 요리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낸다.

THE NEW SEA LOUNGE

보다 높은 곳의 절경을 만끽하며 저녁 식사 하길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만든 새로운 라운지는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윈도로 설계되었다. 이곳은 사계절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눈부신 오후의 햇살부터 저녁노을이 지는 황홀한 장면, 아름다운 달빛이 가득한 밤은 겨울에도 즐길 수 있다. 우아하고 격조 높은 이 레스토랑은 비즈니스맨들과 연인들이 주로 예약한다.

THE HOTEL

폴리나노 아 마레에서 조금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해 호텔은 호사스럽고 아름다운 룸을 준비하고 있다. 한쪽 벽면이 아름다운 석회암 바위로 이루어진 스위트룸은 엔틱 가구와 이 고장의 페브리로 디자인되어 지역의 향기를 물씬 머금고 있다. 호텔은 총 25개의 스위트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룸에서는 모두 아름다운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서 서면 마치 자연과 홀로 대화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절대적인 친밀감이 느껴진다.

THE TOWN OF POLIGNANO A MARE

바리(Bari)에서 남쪽으로 30km, 브란디시(Brindisi)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비아 아피아 트리아이나(Via Appia-Traiana)에서 매우 가까운 이곳 폴리나노 아 마레에는 고대 로마인이 만든 길이 있다. 이곳은 브란디시와 로마를 잇는 통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길이 지나는 자리에 이탈리아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폴리나노 아 마레 마을이 있다. 마을은 석회암 절벽 위에 형성되어 있다. 시간의 흔적이 물씬 느껴지는 아름다운 형태의 지층들을 통해 바닷물이나 바람이 어떻게 이곳을 지나져 갔는지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군데군데 있는 아름다운 형태의 동굴들과 그 위로 흐르는 지중해의 독특한 블루 컬러의 투영은 그 어떤 것보다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들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동굴이 바로 그로타 팔라체세(Grotta Palazzese)이다. 이곳은 이탈리아 바리의 공항에서 48km 떨어져 있으며 바리 기차역에서 서틀을 타면 폴리나노 아 마레에 도착할 수 있다. 또 브란디시행 기차를 타고 폴리나노 아 마레에서 하차할 수도 있다.

Hotel Ristorante Grotta Palazzese Address Via Narciso, 59 70044 Polignano a Mare Bari Italy Tel +39 (0)80 424 0677 www.grottapalazzese.it

